

두산인문극장
2023

Age, Age, Age
나이, 세대, 시대

두산인문극장 2023

Age, Age, Age 나이, 세대, 시대

1

2

펴낸 날	2023년 8월 20일
제작	두산아트센터
기획	두산아트센터 이음
지은이	엄정식 류형돈 이철희 신진욱 정희원 신희선 백영경 김경일

‘두산인문극장 2023 : 나이, 세대, 시대’는
2023년 4월 3일부터 7월 15일까지
두산아트센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두산인문극장 2023 : Age, Age, Age 나이, 세대, 시대’ 강연록의
저작권은 두산아트센터와 저자들에게 있습니다.

3

코로나19는 나이 든 이들에게 더 가혹했다. 젊은 사람들에 비해 노인들에게 치명률이 더 높았고, 이로 인해 돌봄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고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 고립은 육체적 분리뿐 아니라 정신적인 소외까지 의미한다. 코로나19가 노년이라는 나이에 대해 환기하는 계기가 되었지만, 사회의 노령화는 일찌감치 제기되어 오던 문제다. 평균수명의 증가와 출생률의 감소는 자연스럽게 사회의 노령화로 이어진다. 이로 인해 우리는 나이 들어가고 있음을 상대적으로 더 길고 천천히 겪어가는 경험을 새롭게 하게 되었다. 아무도 시간을 거스르지 못하고 죽음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은 그 대로인 채로 맞이하게 될 이 새로운 경험은 우리에게 기쁨이 될 것인가, 슬픔이 될 것인가?

이러한 변화들은 기존의 법칙에 균열을 내고 있다. 기존의 균형과 조화가 분열과 충돌로 바뀌는 것처럼 보인다. 나이 든 사람들의 지혜가 공동체에 보탬이 되고, 이들의 돌봄이 후손들의 번성을 돕는다는 전통적인 생각이 더 이상 유효해 보이지 않는다. 노인과 청년 간의 세대갈등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나이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나이'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제기된다. 나이를 이해해야 그것을 바탕으로 합의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의 삶에서 나이는 계속해서 화두다. 어떤 시기는 나이 들을 기다리고 어떤 시기는 도망치고 싶다. 나이는 시간이라는 객관적인 기준과 경험이라는 주관적인 기준이 더해지는 탓에 복잡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나이'는 '노화'와 '세대'로 이어지고, '인구', '돌봄', '테크놀로지'로 확장된다. 그 테두리에 '갈등'과 '사회문제'가 놓일 수밖에 없다. 두산인문극장 2023은 이런 키워드를 통해 나이를 생각하며 지혜를 모색하고자 한다. 그 지혜는 서로 다른 나이의 이들이 서로 손을 잡는 것, 한 사람의 일생에 펼쳐진 매년의 나이를 일련의 호흡으로 어루만지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4 두산인문극장은 인간과 자연에 대한 과학적, 인문학적, 예술적 상상력이 만나는 자리다. 상상은 현실에 갇혀 있다.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이다. 대부분의 상상력의 한계는 물질문명이 제공하는 테두리에 막힌다. 그 테두리를 확장하는 모험을 하지 않고 새로운 상상력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길이 없다면 새로이 길을 내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두산인문극장은 새로운 상상력의 원천이 될 미지의 땅에 길을 내기 위한 여정을 계속하고 있다. 2013년 ‘빅 히스토리 : 빅뱅에서 빅데이터까지’를 시작으로 2014년 ‘불신시대’, 2015년 ‘예외(例外)’, 2016년 ‘모험’, 2017년 ‘갈등’, 2018년 ‘이타주의자’, 2019년 ‘아파트’, 2020년 ‘푸드’, 2022년 ‘공정’을 지나 올해는 ‘Age, Age, Age 나이, 세대, 시대’로 관객들을 만났다.

두산인문극장 2023 Age, Age, Age 나이, 세대, 시대

5

공연 5월 2일 - 20일 <댄스 네이션>
작: 클레어 배런 • 번역: 함유선
윤색/연출: 이오진 • 드라마터그: 장지영

5월 30일 - 6월 17일 <20세기 블루스>
작: 수잔 밀러 • 번역: 최유솔 • 윤색/연출: 부새롬

6월 27일 - 7월 15일 <너의 왼손이 나의 왼손과 그의 왼손을 잡을 때>
작·연출: 정진새 • 희곡개발리서치: 백종관, Kayip
드라마터그: 양근애

전시 4월 19일 - 5월 20일 눈은 멀고
작가: 구나, 장서영, 전명은

강연 4월 3일 나이와 자아 정체성 엄정식

4월 10일 가장 큰 걱정: 먹고 늙는 것의 과학 류형돈

4월 17일 인구변화가 가져올 이철희
사회경제적 불균형: 전망과 대응

4월 24일 세대갈등과 세대 간 소통 신진욱

6월 19일 갓생살기를 위한 삶 디자인 전략 정희원

6월 26일 노인과 로봇 신희선

7월 3일 돌봄의 끝, 삶의 시작 백영경

7월 10일 적정한 삶: 균형잡힌 삶이 김경일
역량이 되는 시대

차례

- | | |
|-----------|--|
| 1강 | 나이와 자아 정체성
엄정식 |
| 2강 | 가장 큰 걱정 : 먹고 늙는 것의 과학
류형돈 |
| 3강 | 인구변화가 가져올
사회경제적 불균형 : 전망과 대응
이철희 |
| 4강 | 세대갈등과 세대 간 소통
신진욱 |
| 5강 | 갓생살기를 위한 삶 디자인 전략
정희원 |
| 6강 | 노인과 로봇
신희선 |
| 7강 | 돌봄의 끝, 삶의 시작
백영경 |
| 8강 | 적정한 삶 : 균형잡힌 삶이
역량이 되는 시대
김경일 |

두산인문극장
2023

Age, Age, Age
나이, 세대, 시대

1강

나이와 자아정체성

7

엄정식

1942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강대학교 철학과와 서울대학교 신문대학원을 졸업했으며, 국제 로타리 장학생으로 도미해 웨인 주립대학교 인문학 석사학위와 미시간 주립대학교 철학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서강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로 있다. 지은 책으로는 『지혜의 윤리학』 『비트겐슈타인과 분석철학』 『확실성의 추구』 『분석과 신비』 『철학으로 가는 길』 『자아와 자유』 『비트겐슈타인의 사상』 『철학기행 : 우리는 누구인가』 『당진일기』 『길을 묻는 철학자』 『나루터 가는 길』 등이 있다.

8

‘나이’란 사람이 살아온 햇수를 계산하는 사회적 장치이다. 이러한 장치를 통해서 세대를 구분하며 그 특성을 파악하여 그것을 국가나 사회 정책의 입안에 활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나이를 근거로 사람들의 유형을 단순화하거나 일반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나이 듦’은 시대적 혹은 문화적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개인의 성품과 기질 혹은 선택과 결단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의 특성을 이해하려면 그가 성장해 온 자연적 조건과 함께 사회적 환경, 개인적 특성 등을 함께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이와 관련하여 행복 추구보다는 각자의 자아정체성을 먼저 검토할 필요가 바로 여기에 있다. 시간의 흐름과 나이 듦을 막을 수는 없지만 자아의 인식을 통해서 그것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관리할 수는 있기 때문이다.

자아정체성이란 ‘내가 나로서 나답게 사는 방안’을 모색하는 문제라고 규정할 수 있다. 이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선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시 말해서 나의 욕구와 능력과 당위라는 세 변수를 삶의 흐름 속에서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아의 정체성은 이 세 변으로 형성된 하나의 삼각형이며, 나이 듦이란 이것이 제대로 파악될 뿐만 아니라 상황에 맞는 신축성을 보일 때 바람직한 형태로 구체화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자아의 정체성을 이해한다는 것은 인생의 전개 과정에서 한 개인의 존재와 당위가 어떻게 규정되는지 파악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우리는 신체적 및 정신적 성장의 특징에 따라 나이를 세대별로 구분해서 고찰할 수 있다. 가령 유소년기는 육체적인 성장기이므로 신체의 발육과 건강에 관심을 기울이고, 청년기에는 자아가 형성되는 시기이므로 인격의 도야와 지식의 습득에 진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장년기에는 자신이 성취한 것을 누리고 봉사하는 시기이므로 명예를 지키고 긍지를 갖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노년기에는 과욕을 삼가고 삶의 의미를 음미하며 죽음을 예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개인의 입장과 사회적 및 시대적 여건에 따라 각기 자신의 욕구와 능력과 당위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화하기는 역시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가령 유소년, 청년, 장년, 노년의 삶이 각기 다르고 나이와 정비례하지 않을 수 있는 이

9 유도 여기에 있다. 결국 ‘나이 들’이란 각자의 실존적 선택과 결단의 문제일 수밖에 없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나이 들에 대한 결과와 그 책임도 각자가 스스로 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자연 현상이나 사회적 환경에 따라 누구나 나이를 먹기 마련이다. 그러나 우리는 각자의 행복을 추구하는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하므로 결국 자신의 나이를 먹을 수밖에 없다. 그러한 의미로 행복도 자아정체성의 부산물일 뿐이다.

II

인간은 누구나 행복해지기를 바란다. 그것은 나이와 세대, 혹은 시대와도 상관없이 모든 인간의 보편적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행복이 무엇인지 규명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 학자들 사이에도 의견이 다양하여, 그것을 감각적 쾌락과 동일시하기도 하고 이성적 기능을 최대한으로 발휘한 상태로 보는가 하면, 막연히 우리의 소망이 실현된 경우로 규정하기도 한다. 또 어떤 사람은 자연의 섭리에 순응할 때 행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것은 상상력의 소산인 공허한 개념이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보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음 몇 가지 점들을 고려하여 행복의 개념을 좀 더 명확히 규명해 볼 수 있다.

첫째, 행복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개인이 특정한 상황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개념이다. 그것은 긍정적인 정신 상태, 즉 욕구나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 느끼는 만족감이나 충족감 같은 심리적 경험을 의미하는 것이다. 둘째, 행복은 본질적으로 선악의 가치가 개입된 윤리적 개념이다. 그것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다른 사람이나 집단과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만족감인 것이다. 여기서 바람직한 삶이 무엇인지를 묻게 되는데 이 문제는 인간으로서 고유한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당위를 함축하게 된다. 셋째, 행복은 체계적인 인생 계획 및 그 실현과 관계되는 합리적인 개념이다. 그것은 단순한 일시적 만족감이나 행운의 선물이 아니라 합리적인 인생 계획의 맥락 속에서,

10

혹은 총체적 자아실현의 과정에서 오는 지속적인 경험의 일부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행복은 행운과 축복을 필요로 하는 섭리적 개념이다. 그것은 우연적 요소가 개입되는 감정으로서 이론적인 개념의 규정과 실천적인 의지의 결단을 넘어서는 그 무엇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우리는 행복이란 ‘합리적인 인생 계획을 가진 사람이 윤리적인 차원에서 자신의 의무나 당위를 이행하는 동안, 총체적 자아에서 우리나라 소망을 성취시켰을 때 얻는 우연적인 만족감’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러한 만족감을 경험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만족할 수밖에 없게 된다. 사실 우리는 단순한 기쁨이나 만족감을 얻기도 어려우며, 그것이 다른 사람과의 원만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려면 더욱 복잡해짐을 알게 된다. 더구나 우리는 자신의 총체적 자아가 무엇인지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생 계획을 설계하는데 있어서 합리적인 태도를 유지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

그렇다면 첨단 과학기술의 시대인 현대에 인간은 지금까지보다 더욱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인가. 과학기술은 그동안 문명의 이기를 창출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켰고, 따라서 심리적으로 만족도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 주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개인주의적 사고와 이기주의적 태도가 강화되어 윤리적 차원에서의 사회 인식이 약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한 개인은 창의적 직관이나 이성적 주체이기보다는 정보 교환의 거점으로서 이른바 ‘인포매니아(informania)’로 전락하기 쉬운 상태에 있음을 보여준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행복을 추구하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시시각각으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거기에 더욱 가까이 다가갈 방법을 강구하는 방안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그것을 우리는 자아정체성의 확인 혹은 자아의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크세노폰의 『소크라테스 회상(Memorabilia)』에서 소크라테스는 “자아를 인식한 사람은 무엇이 적합한지 스스로 알며,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를 분별하며, 또한 어떻게 할 것인지 아는 바를 해냄으로써 필요한 것을 얻고, 그리고 모르는 것은 삼감으로써 비난받지 않고 살아가며 또 불운을 피하게 된다”고 역설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했을 때 무엇을 어떻게 알라고 한 것인지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 그는 나의 진정한 욕구와 능력과 당위가 무엇인지 알며 동시에 그 아는 바를 실천에 옮길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소크라테스의 경우 아는 것이 곧 행하는 것임을, 플라톤이 이해한 ‘지행합일설(知行合一說)’을 상기할 때 이 점은 더욱 분명해진다.

자아는 나의 욕구와 능력과 당위라는 세 변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삼각형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삼각형의 모습과 크기를 파악하는 것이 곧 자아의 인식이라고 해석해도 좋을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은 우리가 역경에 처했을 때,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다시 말해서 욕구를 충족시킬 능력이 없거나 주위의 여건이 허락하지 않을 때 그 윤곽이 더욱 뚜렷해진다는 것이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무엇을 원했었는지 분명해지며, 또한 그것이 자기의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인지 혹은 자신의 처지에서 허용되지 않기 때문인지 등이 비로소 확실해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특히 역경에 처했을 때 자아가 욕구와 능력과 의무라는 세 요소로 구성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자아의 인식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 제기함으로써 그 출발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질문의 모호성과 추상성 때문에 항상 당혹감을 느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을 자기의 욕구와 능력과 당위를 묻는 세 가지 질문, 즉,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로 나누어 제기하고 또 거기에 각기 따로 답변을 마련함으로써 우리는 문제의 성격을 좀 더 구체화

12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답변의 한계도 더욱 분명하게 이해하게 된다. 자신의 욕구를 잘못 인식할 뿐 아니라 당위와 혼동하고, 욕구와 당위가 충족되어도 능력이 모자라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깊은 성찰을 통해 끊임없이 질문을 제기하고 너무 일그러진 삼각형이 되지 않도록 자신의 모습을 형성해 나가는 일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과연 무엇인가.

첫째, 자아의 인식을 위해서 막연히 ‘나는 누구인가?’를 묻는 것보다는 ‘나는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또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물으면 좀 더 구체적인 답변, 즉 좀 더 구체적인 자아의 인식에 도달할 수 있다. 둘째, 세분화한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구체적인 인식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자아에 관한 한 인식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도 더욱 명확해졌음을 깨닫게 된다. 셋째, 이러한 인식은 내가 나로서 나답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살아갈 가치가 있다는 소크라테스의 이른바 ‘반성된 삶’임을 인식하게 된다. 이렇게 사는 동안 행운이 찾아와 주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도 있게 되고, 되고 싶은 사람이 될 수도 있으며, 어찌면 행복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바람직한 삶의 부산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식과 성찰을 인생의 여정을 관리하며 바람직한 나이 들에 적용할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세대별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IV

‘세대’라는 개념도 시대의 특성이나 환경에 따라 변화할 수밖에 없다.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현대인의 생활과 의식은 탈가족화하였으며 가족의 개념 그 자체도 급속히 변질되고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연령층에 따라 유사 체험을 공유하는 학교와 직장으로 그 중심이 옮겨 가게 되었다. 새로운 개념의 ‘세대’는 이러한 변화를 거쳐 형성되었으며, 가치관이 미래 지향적인 청소년층과 현재 지향적인 장년층, 그리고 과거 지향

13

적인 노년층의 뚜렷한 구분도 이러한 상황에서 새롭게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청년층에 의해 급격한 사회 변동 과정에서 기성세대의 지배적 문화에 대립하는 문화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다.

자아정체성의 관점에서 볼 때, 신체적 성장이나 정신적 성숙의 면에서 청소년기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대체로 미래지향적일 수밖에 없는 청소년층에게는 상대적으로 소망의 측면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하며, 정신적으로는 꿈을 구체화하고 희망을 체계화할 뿐 아니라 신체적인 단련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오늘날 점차 세대 차이가 심화되면서 기성세대가 흔히 'MZ세대'라고 불리는 청소년 세대의 롤 모델이 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MZ세대는 기성세대의 도움 없이 낯선 디지털 세상을 향해해야 했으므로 빠르게 돌아가는 디지털 환경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스스로 깨쳤다고 믿는다. 따라서 자신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온라인상의 규범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 기성세대를 불신하는 경향이 있는 그들은 오히려 온라인상의 '진정성'을 높이 평가하며 소셜미디어에 불안, 우울, 탈진 등을 솔직하게 드러냄으로써 그것을 극복하고 솔직함을 자랑한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에게 현실은 낯설고 난해하다. 현실은 아직 기성세대가 구축해 온 세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이 오늘날 세대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것을 어느 정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인식과 철학적 통찰, 예술적 감수성 등의 인문적 소양이 필요하다.

청소년 세대의 당위와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신체적 측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운동을 통해서 경험하는 신체 기능과 신체 변화는 신체적 자아 개념뿐만 아니라 전체적 자아 개념을 긍정적으로 유지해 주는 역할을 한다. 이 시기에 학업이나 취업 준비에 전념하느라 체력을 단련하지 않으면 우선 건강을 유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중년이나 노년기의 정상적인 생활에서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어려운 과정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젊었을 때 시작하고 더 많이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4

신체적 자아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혈기가 왕성해진다는 현상이다. 이러한 경우 욕구와 욕망을 다스리기가 어려워지고 판단력이 흐려지므로 매사에 신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너무 신중하면 청소년의 특권인 꿈과 야망을 키우는 데 있어서 차질을 빚을 수 있으므로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적절한 능력과 방안을 강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 시기에는 노년에 이르러서도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경제적 여유나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풍요로움을 예비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독서와 여행을 통해서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풍부한 경험을 쌓아두는 것이다. 그것은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지만 노년에 이르러서는 아름답고도 즐거운 추억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지향적인 장년층은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자신의 존재 이유와 당위를 확인하고 또 입증해야 하는 시기에 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자기가 성취한 업적과 결과물을 누리고 사회에 환원하는 시기도 바로 이때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연륜을 인지하는 시기는 개인마다 각기 다르겠지만 50세 전후를 맞이하여 대부분 심적 박탈감을 느끼는 것도 보편적 현상인 것 같다. 공자는 나이 스물을 넘겨서도 명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고 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장년 세대는 자아정체성의 의미 있는 변화를 의식하고 수용하는 시기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그는, “스물이 되어서는 모든 세상사에서 하늘의 뜻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논어 위정편)”고 피력한 적이 있다. 특히 이 시기에는 능력에 한계가 있음을 절감하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공자는 또한 군자가 경계해야 할 세 가지를 들면서 “노년이 되어서는 혈기가 이미 쇠퇴하였기에 재물에 대한 욕심을 갖기 쉬운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것을 우리는 소망의 내용을 조절하여 권력이나 재물, 명예 등 외적 가치보다는 예술이나 종교, 지식 등 내면적 가치의 추구에 더 신경을 쓰라는 가르침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추구되는 진선미와 성스러움의 가치들은 경쟁에서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자족의 경지에 이르기도 더 수월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노년기는 과거 지향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전반적으로 삶의 의미를 음미

15

하고 하늘의 뜻에 따라 적당한 때에 물러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이다. 물론 공자가 지적하듯이 “일흔에 이르러 하고자 하는 것을 그대로 따르더라도 따라야 할 일정한 법도를 넘지 않게” 되지는 못하더라도, 새로운 소망을 펼치거나 지나친 욕심을 부림으로써 애써 가꾸어 온 것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소망과 능력과 당위라는 세 변을 잘 조절하여 작지만 아름다운 삼각형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가장 바람직하게 삶을 정리하고 죽음을 예비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키케로(Cicero)는 『노년에 대하여』에서 나이 들이 드러내는 결함 4가지를 반박한 적이 있다. 그 결함들은 “젊음이 할 수 있던 일을 못 하게 하고 신체를 약하게 하며, 즐거움이 없고 죽음과 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첫째, 민첩성이나 기민성이 아니라 계획이나 판단력 등 어울리는 일을 하면 되고, 둘째, 체력을 기대하지 않으니 그것이 덜 소모되는 일을 하면 되며, 셋째, 감각적 쾌락을 누리기 어렵지만 이성과 지혜로 추구할 수 있는 쾌락을 향유할 수 있으니 오히려 다행이라고 주장한다. 넷째, 그는 이성과 지혜로 거부할 수 없으나 허용되지 않는 욕망을 억누를 수 있는 노년에 감사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육체적 쾌락은 감소하겠으나 원하고 노력한다면 정신적 쾌락은 더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죽음에 대한 태도이다. 청소년에게는 갑작스러운 현상이지만 노인에게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며 완숙(maturitas)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고, 명예로운 죽음은 영생의 징표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견해 역시 키케로 자신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긴 하나 너무 위축되지 않는 노년을 위하여 참고할 만하다. 노년에 이르는 것도 우리들 각자에게는 새로운 경험임에 틀림없다. 그것은 분명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당사자에게는 ‘낯선’ 경험일 수밖에 없으며,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미처 준비하지 못한 상태로 일종의 ‘장애’를 체험하는 것일 수도 있다. 첨단 과학기술의 시대일수록 그러한 노년 세대의 고통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갈등의 극복뿐만 아니라 자구책을 위해서라도 새로운 문물을 이해하고 숙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세상을 살아가는 식견이나 지혜도 그만큼 많이 축적된 것이 사실이다. 유목 사회나 농경 사회를 거치면서 연로한 남성 중심의 가부장 제도가 출현한 것도 여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하면서 양상이 많이 달라졌다. 특히 산업화 시대에서 정보화 시대로, 그리고 초연결 사회로 변천하면서 이루어진 시대적 변화는 학습 패러다임의 변화도 요구해왔다. 기술 발전으로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지식과 정보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었다. 들고 다닐 수 있는 IT 기기 하나만으로 원하는 지식을 곧바로 얻을 수 있는 초연결 사회가 펼쳐졌다. 이에 따라 정보를 응용하고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해진 것이다.

결국 ‘나이’에 관한 전통적인 인식이 흔들리기 시작했음을 우리는 수긍할 수밖에 없다. 첨단 과학기술의 접근성이 용이한 젊은 세대가 반드시 더 식견이 높고 지혜롭게 된 것은 아니지만 노년기에 접어든 세대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진 것도 또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를 의식하는 것이 전혀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우리가 자연의 섭리를 거역할 수 없는 한 여전히 ‘나이 듦’이란 음미할 가치가 있으며 ‘나이답게’ 산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기 때문이다. 나이와 관련하여 행복의 추구에 급급하기보다는 먼저 자아정체성 혹은 자아의 인식이라는 문제를 검토하고, 각자가 자신의 세대와 시대를 ‘나로서 나답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2강 가장 큰 걱정 : 먹고 늙는 것의 과학

류형돈

연세대학교 생화학과를 졸업하고, 뉴욕의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생화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록펠러대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거쳐, 2005년부터 뉴욕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초파리를 모델로 하여 색소 망막염과 같은 퇴행성 질환을 연구하면서, 세포가 질병의 원인이 되는 스트레스에 세포가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주로 연구하고 있다. 『네이처』, 『셀』, 『미국국립과학원회보』 등 세계적인 과학저널에 40편 이상 논문을 발표했으며, 『셀 리포트』와 미국 미생물학회에서 출판하는 『분자세포생물학』의 편집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베이실 오코너 상(2006년), 엘리슨의학재단 신진과학자상(2008년) 등을 수상하였다. 지은 책으로 『가장 큰 걱정: 먹고 늙는 것의 과학』이 있다.

18

노화는 피할 수 없는 필연인가? 세월의 풍파에 건물 및 기계들도 점차 제 기능을 잃으니, 노화를 그저 자연의 섭리라고 흔히 여길 수 있다. 이미 19세기 통계물리학자들이 이러한 현상을 열역학 제2법칙이라 불리는 이론으로 입증한 바 있다. 이 이론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우주 전체의 무질서도는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한다”는 것이다. 이는 무슨 뜻인가? 생명체를 하나의 정교한 기계라고 치자. 모든 부속품이 원래 의도한 위치에서 질서 있게 작동을 해야만 생명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 그런데 무질서도가 증가하면? 부속품이 무질서하게 변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곧 제 기능을 잃는다는 뜻이다. 그러니 세월이 지나면서 망가지는 부분이 계속 생긴다. 노화가 진행되는 것이다. 그것이 심해지면서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상태, 즉 죽음에 이른다. 열역학 제2법칙을 생각하면 노화는 필연처럼 여길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이론에는 전제가 하나 필요하다. 외부에서 특별한 도움 없이 고립된 상태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이것은 외부에서 도움을 받는다면 적용이 안 되는 법칙이다. 우리는 살면서 외부에서 얻은 영양분을 꾸준히 섭취한다. 그렇게 얻은 에너지를 이용해서 몸 안의 망가진 부분을 고치면 부러진 뼈도 아물 수 있고, 찢어진 상처도 치유된다. 즉 우리는 ‘고립된’ 상태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꾸준히 외부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망가진 부속품들을 고칠 수 있기 때문에 무질서도 증가를 막을 수 있다. 살아있는 생명체와 그렇지 않은 기계는 다르다. 생명체에게 노화는 반드시 필연이 아닐 수 있는 것이다.

• •

시간이 지나면 인간의 몸은 계속 노화하지만, 노화가 모든 생명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박테리아를 살펴보자. 실험실에서 영양분을 충분히 제공하며 키우면 이들은 성장하고 20분마다 분열해서 숫자를 2배로 늘린다. 1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시간이 지났다고 성장하고 분열하는 정도가 결코 줄어들지 않았다.

19

사람의 세포에도 영원히 늙지 않는 성분이 있다. 우리의 생식 세포를 한번 살펴보자. 우리 몸은 늙어가지만, 그 늙어가는 몸에서 나온 정자와 난자가 합쳐지면 새 생명이 태어난다. 그 세포를 구성하는 성분을 보면 그 어느 생명체의 성분보다 더 싱싱하다. 모든 것이 정교하고 질서 있게 작동한다는 것이다. 늙은 몸을 가진 부모에게서 태어나도 이렇게 태어난 새 생명체는 젊은 삶을 다시 시작한다. 그리고 이를 자손만대에 걸쳐 반복한다. 만약 세월이 지난다고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의 무질서도가 증가하고, 서서히 기능을 잃기 시작한다면 이 같은 현상이 반복될 수는 없다. 생식 세포 안에는 노화된 성분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우리 몸은 늙게 되어있는가? 박테리아처럼 모든 세포들이 늙지 않도록 될 수는 없었을까? 그랬다면 이 세상에는 노화 현상이라고는 없었을 텐데 말이다. 그 이유는 우리 유전물질인 DNA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가 늙는 이유는 우리 인간이라는 종족의 DNA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반면 박테리아가 세월의 풍파에도 그 생체 기능을 잃지 않는 것은 그 종의 DNA가 다른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정말 DNA가 달라서 노화 속도에 차이가 있는 것인가? 이를 30~40년 전 여러 과학자들이 실험으로 입증하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신시아 케년(Cynthia Kenyon)이라는 유전학자이다. 그녀는 꼬마선충을 이용해 유전학을 연구하는 학자인데, 30여 년 전 DNA 돌연변이를 만들었더니 꼬마선충의 수명이 2배 이상 늘어났다는 결과를 발표해서 이 분야의 새 지평을 열었다. 그 이후 여러 가지 다른 동물을 이용해서 비슷한 결과가 발표됐다. 이러한 연구가 쌓이고 쌓여서 DNA가 노화 속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개념이 확립됐다.

그러면 왜 생명체마다 노화 속도가 각기 다른 DNA를 갖게 되었을까? 이를 잘 설명하는 것이 진화론이다. 이는 찰스 다윈이 1800년대 중반 주창한 이후 꾸준히 증거가 쌓여서 더 확고해진 이론이다. 지난 30~40년간은 DNA 연구로 핵심 개념들이 더욱 공고해졌다. 그 핵심 개념은 지금 세상에 사는 동식물들은 멸종한 어떤 공통의 조상으로부터 분화되어 나왔다는 것이다. 그 조상에게서 DNA를 물려받았으나, 그 정보가 세월에 따라 조금씩 변하면서 각기 다른 종으로 발전했다는 것이다. 사람과 원숭이의 DNA가 비교적 비슷한 이유는 그 어떤 공통의 조상으로부터 분리된 시기가 상대적으로 오래

20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에 반해 생쥐와 토끼의 DNA는 차이가 더 큰데, 이는 공통의 조상에서 분리돼 나온 기간이 더 오래됐기 때문이다. 그보다 이전에는 심지어 박테리아와의 공통 조상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너무 오래전에 그 공통의 조상에게서 분리돼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DNA가 너무 많이 달라졌고, 그렇기에 우리의 노화 속도 역시 달라지게 됐다.

• •

그렇다면 우리가 진화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경쟁’이라는 말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 이 세상에서 수많은 생명체들이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경쟁을 한다. 풀밭에 씨앗을 뿌려보라. 그 씨를 먹고자 하는 새들, 그리고 더욱 햇볕을 많이 받으려 하는 주위의 풀 때문에 씨앗들의 심중팔구는 살아남지 못한다. 만약 DNA에 아주 작은 변화가 생겨서 그 환경에서 경쟁하는 데 더 유리해진다면 그 생명체는 ‘자연 선택’을 받는다. 그러면서 종들이 진화한다.

그렇다면 수명이 짧은 생쥐, 그보다 더 짧은 바퀴벌레도 제대로 경쟁할 수 있을까? 그렇다. 이들은 비록 노화가 빨리 진행되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더 많은 새끼들을 낳는 방향으로 진화해 왔다. 이러한 전략이 성공적이었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다. 생쥐와 바퀴벌레 개체 수가 적다고 불평하는 사람은 아마 하나도 없을 것이다.

진화는 결국 그 종의 DNA가 얼마나 더 성공적으로 널리 퍼지는지가 관건이다. 이를 체계적으로 설명해서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은 것이 ‘이기적 유전자’ 이론이다. 어떻게 하면 DNA를 더 널리 퍼트릴 수 있을까? 단지 생식 기능만 강하다고 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자손을 퍼트리려면 영양분 공급이 충분해야 하기에 먹을 것을 찾는 능력이 뛰어나야 한다. 물론 근육이 강해지면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뇌 기능이다.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사탕을 가지고 생떼 쓰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21

본능을 알 수 있다. 사탕 속의 포도당을 섭취하기 위해서 아이들의 뇌는 온갖 감정을 다 분출한다. 초기 인류는 영양분을 쟁취하기 위해서 도둑질과 폭력 행사도 마다하지 않았고, 그런 뇌를 갖도록 진화해 왔다. 그리고 이렇게 영양분을 위해 투쟁할 수 있는 개체들이 선택되었다.

영양분과 노화 이야기를 할 때 현대 사회의 풍족한 식량을 빼놓을 수 없다. 과학자들은 현대 인류의 역사를 10만 년에서 20만 년으로 보는데, 20세기 중반 이후에야 식량 혁명에 의해 먹을 것이 풍족해졌다. 즉 우리 역사의 99.9% 이상을 굶주린 가운데 진화해 왔다는 이야기다. 그러한 환경에서 싸워가면서 영양분을 쟁취해 온 이들이 우리에게 DNA를 물려주었다. 그러니 식량이 풍족해진 현대에는 모두들 필요 이상의 당분, 지방질과 단백질을 섭취한다.

식량이 부족했던 시절에는 이러한 DNA의 성질이 우리의 생존을 도왔다. 그러나 현대에는 모두들 지나친 영양 섭취를 추구하게 되니, 이 때문에 늘어난 것이 당뇨병과 심장병이다. 당뇨병은 지나친 당분 섭취 때문에, 심장병은 지나친 동물성 지방질 때문에 악화된다. 이런 상황을 직시한 전문가들은 적게 먹을 것, 그리고 동물성 식단을 피할 것을 주문한다. 더 나아가 식량이 부족한 환경에서 우리 몸이 진화해 왔다는 사실에 기반해서 원시인들처럼 ‘간헐적 단식’을 할 것을 주장하는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증가했다. 하지만 이러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는 이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왜 그럴까? 우리 뇌가 설탕 섭취를 ‘행복하다’고 느끼게 만들고, 반대로 영양 섭취가 부족한 상황을 ‘고통스럽다’고 느끼도록 진화했기 때문이다.

• •

영양분 섭취는 자손을 퍼트리는 데 중요한 여러 가지 요인 중 하나일 뿐이다. 건강한 짝을 찾는 우리 행동을 생각해 보자. 수많은 유행가 및 문학 작품이 사랑 문제를 다룬다. 사랑하는 짝을 찾을 때 우리 뇌는 무한한 행복을 느끼게 되고, 사랑을 실현할 수 없

22

을 때 우리 뇌는 우울증에 빠지기도 한다. 이러한 쪽으로 DNA가 자연 선택된 사람들이 더 열심히 성공적으로 짝을 찾아 나섰을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DNA를 후손들에게 많이 퍼트렸을 것이다.

생명체들마다 그 후손을 대하는 방식이 각기 다르다. 많은 포유동물들은 새끼를 낳은 후 일정 기간 아기들에게 젖을 먹이며 그들의 생존을 돕는다. 그런데 어떤 동물들은 젖먹이 기간이 끝나는 대로 새끼들을 독립시킨다. 그 작은 새끼들이 다른 맹수에게 잡아먹힐 위험이 있기는 하나, 먹히는 수보다 새끼를 더 많이 낳겠다는 전략을 가진 동물들이 있다. 생쥐, 바퀴벌레가 이 경우에 해당한다. 인간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낳은 자식들이 죽지 않고 성장해야 DNA를 퍼트릴 수 있는데, 낳을 수 있는 숫자는 다른 동물들에 비해 형편없이 적다. 상황이 이러하니 인간은 자식들의 생존을 위해 시간을 쏟는다. DNA에 담겨있는 정보를 토대로 우리 뇌가 만들어졌으니 어린아이들을 귀여워하는 것도 우리의 본능이 되었고, 성공한 아이들을 자랑스러워하는 것도 우리의 본능이 되었다. 이 연장선상에서 부모들은 아이들의 입시, 취직, 및 그 이후의 일들까지, 그들의 성공을 위해 헌신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본능적인 행복을 느낀다.

행복이라는 개념도 생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행복하다’고 느끼게 되는 것들을 살펴보자.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사랑하는 짝과 시간을 보낼 때, 그리고 건강한 아이를 성공적으로 키울 때, 누구나 ‘행복하다’고 느낀다. 이 세 가지는 동시에 우리의 DNA를 후손들에게 많이 퍼트릴 수 있는 전제 조건이다. 이렇게 우리는 새끼를 성공적으로 키우면서 DNA를 퍼트리려는 전략으로 진화해온 종이다. 자식의 성공에 너무 많은 힘을 쏟았기에, 늙어가는 우리 몸의 노화를 방지하는 데에는 완벽한 대처를 못 했다. 하지만 부수적으로 얻은 것들이 있다. 살아있는 동안 가족, 자식들과 함께 지내며 느끼는 행복한 감정이 그것이다. 다른 많은 동식물들은 느끼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만끽하며 산다.

3강

인구변화가 가져올 사회경제적 불균형 : 전망과 대응

이철희

시카고대학교 경제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시카고대학교 인구경제학연구소 연구원과 뉴욕주립대학교 경제학교 교수를 역임하였다. 지난 25년 동안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에서 경제사와 인구경제학을 강의하였고, 생애에 걸친 건강의 결정요인, 산업과 기술의 변화가 고령노동에 미치는 영향, 인구변화의 요인과 영향 등을 연구하였다. 저서로는 『Early-Life Determinants of Health and Human Capital Formation: Evidence from Experiments in Korea』, 『한국의 고령노동』 등의 저서를 출간하였고, 국내외 학술지에 약 90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24

출생아 수의 급격한 감소와 가파르게 진행되는 인구 고령화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당면 과제가 된 지 이미 오래되었지만, 최근의 인구변화 추이는 인구 감소 시계가 이전에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이고 있음을 일깨워 준다. 2022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로 전쟁이나 재난을 겪는 국가가 아니면 경험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떨어졌고, 한 해 출생아 수는 30년 전 수준의 3분의 1에 불과한 24만 명대를 기록했다. 몇 년 전부터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앞지르며 사상 처음으로 주민등록인구가 감소하기도 했다. 미래의 전망도 밝지는 않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결혼이 큰 폭으로 줄었으며 이는 더욱 가파른 출생아 수 감소와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빠르게 진행되는 인구변화는 우리 경제에 상당한 충격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된다. 가장 중요하게 거론되는 인구변화의 파급효과 가운데 하나는 노동 인력 규모의 감소와 고령화이다.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르면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2070년까지 현재의 46%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노동 인구 가운데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고령화와 함께 생산성이 감소한다면 인구변화로 인한 실질적인 노동 투입은 더 빠른 속도로 감소할 수 있다. 인구변화로 인한 노동의 양적·질적 감소는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잠식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고용 연장이거나 이민자 수용 등을 포함하여, 잠재적인 노동 인구 감소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되는 것은 이러한 어두운 전망을 반영한다.

그렇다면 장차 노동 인구는 얼마나 빠르게 감소할까? 과연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가 실제로 나타나게 될까? 인구변화는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노동 인구 규모의 지표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생산 연령 인구보다는 좀 더 자세한 지표들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즉 실제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인구의 규모를 살펴보고, 노동 인구의 생산성 변화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또한 전체 노동시장에서 집계된 인력 수급뿐만 아니라 인력 유형별, 부문별 노동 수급 불균형 발생 가능성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장래의 인구변화가 인적자본의 질을 고려한 경제 활동 인구 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해 보자. 이를 위해 장래의 성별·연령별·학력별 인구를 추정하고 여기에 각 특성별 인구의 최근 경제 활동 참가율을 적용하여 2070년까지의 성별·연령별·학력별 경제 활동 인구를 추정한 결과를 소개해 본다. 그 결과는 인구변화에 의해 우리나라의 노동 인구가 장기적으로 줄어들겠지만, 생산 연령 인구에 비해 훨씬 완만한 속도로 감소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이러한 결과는 기본적으로 청년 경제 활동 참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장년 및 고령 인구의 경제 활동 참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성을 반영한다.

인구변화가 우리 노동시장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전망하기 위해서는 노동 인구의 질적인 변화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인구 고령화와 함께 우리나라 노동 인구는 빠르게 고령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변화는 노동 인구의 생산성을 낮출 가능성이 높다. 다른 한편 미래의 고령 인구는 현재의 고령자보다 더 교육 수준이 높고 건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과 인적 자본의 개선은 전체 노동 인구의 생산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요인의 영향이 더 강하게 나타날까? 성별·연령별·학력별 시간당 임금을 가중치로 하여 생산성을 조정한 노동 인구를 추정한 결과를 살펴보면, 교육 수준의 개선으로 인한 생산성의 증가 효과가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악화 효과보다 더 클 것임을 보여준다. 즉 생산성을 조정한 노동 인구는 경제 활동 인구에 비해 더 느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의 전망은 현재의 경제 활동 참가율과 노동 생산성이 앞으로도 유지될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한 것이다. 만약 정책적인 노력이나 다른 사회적·경제적 변화로 인해 경제 활동 참가율이나 생산성이 개선된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여러 가지 가상적인 시나리오를 도입한 분석 결과는 여성과 고령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개선되는 경우, 인구변화로 인한 노동 인력 감소 문제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임을 보여준다. 노동 생산성의 개선도 인구변화로 인한 노동 인구 감소를 상당히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보

26

인다. 결혼과 출산 등에 기인한 여성의 상대적인 저생산성이 완화되면 생산성을 조정
한 노동 투입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과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통한 장년 인력의 생산성 개선도 인구변화로 인한 장래 노동 인구 감소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하건대 앞으로 적어도 15~20년 동안은 전반적인 노동 부족 문
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고 생산 연령 인
구는 빠르게 줄어들 것이지만 전체 경제 활동 인구는 당분간 매우 완만하게 감소할 것
이다. 노동 인구의 고학력화가 고령화 효과를 압도하기 때문에 인구 변화로 인한 노동
생산성 감소도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 활동 참가율 증가와 노동 생산성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인구변화로 인한 노동 투입 감소 폭은 더욱 줄어들 것이다. 그리
고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기술 및 산업 구조 변화로 인해 장차 노동 수요가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전망을 고려할 때 적어도 가까운 장래에는 노동 투입 총량을
늘려야 할 정책적인 필요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노동 인구 감소에 대
응한 고용 연장이나 대규모 이민자 도입을 당장 무리해서 추진할 이유는 그리 뚜렷하
지 않다.

인구변화의 구체적인 양상을 고려하건대 가까운 장래에는 전반적인 인구 감소 혹은
인구 고령화에 대한 대응보다는, 출생아 수의 급격한 감소로 말미암은 출생 코호트 간
불균형과 부문 및 지역 간 불균형 심화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즉 인구
변화에도 불구하고 전체 노동 인구는 당분간 크게 줄어들지 않겠지만, 산업, 직종, 지
역에 따라 노동 부족과 공급 과잉이 함께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노동 인력의 규모뿐
만 아니라 연령·학력별 인력의 비중에 있어서도 인구변화의 효과는 산업별로 이질
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연령·학력별 노동 인력의 대체성이 높아지지 않는다면
산업은 물론 연령·학력별 노동 인력 간 노동시장 수급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특히 중요한 유형의 노동시장 불균형 요인은 청년 노동 인구의 급격한 감소다. 현재는 연간 출생아 수가 60만 명대인 1990년대 출생자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있으나 약 5~6년 후에는 출생아 수가 40만 명대로 줄어들었던 2002년 이후 출생자들이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시작한다. 이에 따라 가까운 장래에 노동시장 신규 진입자의 규모가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젊은 취업자들은 가장 최근에 교육을 받아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최신의 지식을 보유한 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젊은 노동 인력은 중장년 취업자들에 비해 학습 능력, 적응력, 지리적·사회적 이동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들의 수적인 감소는 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적 자본을 탄력적으로 공급하는 노동시장의 기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또한 청년 인력을 다른 유형의 노동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부문에서는 노동 수급 불균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청년 인구의 감소가 노동시장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은 산업이나 직종별로 매우 상이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즉 일부 부문에서는 35세 미만 취업자의 비중이 특히 빠르게 감소하는 반면 다른 부문에서는 젊은 노동 인력의 상대적인 감소가 미미할 것으로 나타난다. 젊은 노동 인력 감소의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들은 대체로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고, 근래에 상대적으로 성장 속도가 빨랐으며, 평균적인 숙련 수준과 일자리 질이 높다는 특징을 보인다. 따라서 우리나라 산업의 미래가 걸려 있는 부문에서 발생하는 노동수급 불균형은 적지 않은 경제적 충격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된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 인구 감소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되는 방안 중 하나는 점
점 늘어나는 고령 인구의 고용을 연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했듯이 적어도
당분간은 정년 연장 혹은 고용 연장이 인구변화가 초래할 수 있는 노동력 부족을 위해
필요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고령자들의 고용 연장으로 앞으로 일어날
노동시장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약 20년 동안 진행될 노동시장의 가장 중요
한 변화는 젊은 취업자의 빠른 감소인데, 고용 연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나이 든
취업자가 늘어나더라도 업종과 숙련의 차이 때문에 줄어드는 젊은 노동 인구를 효과
적으로 대체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현재 노동시장의 여건에서는 고용 연장 추진을 통해 실제로 조기 퇴직의 위험성
이 줄어드는 고령자의 비중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55세 이상 취업자의
절반 이상은 자영업자 혹은 무급 가족 종사자로 고용 연장과는 무관하다. 또한 2016
년 정년 연장이 시행된 이후에도 정년으로 퇴직하는 임금 근로자는 전체 50~69세 임
금 근로자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한다. 특히 고령자들이 많이 고용되어 있는 중소기업
의 경우 여전히 정년으로 퇴직하는 50세 이상 근로자의 비율이 매우 낮다. 30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 정년으로 일을 그만두는 비율은 15%에 불과하며, 30~299인 사업체
의 경우에도 퇴직자의 3분의 1만 정년까지 일자리를 떠나고 있다. 그런데 55세 이상
임금 근로자의 절대다수는 100인 미만 사업체에 고용되어 있다. 이는 중소기업의 경
우, 정년이 없거나 그것이 고용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현실을 반영한다.
2016년~2017년의 정년 연장 사례를 볼 때 고용 연장은 청년 및 중장년 고용에도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인구변화는 특정한 출생 코호트 규모에 맞도록 설계된 여러 가지 제도들의 불균형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 가운데 교육, 국방, 의료 등의 분야는 특히 가까운 장
래에 불균형이 심각해질 수 있어서 빠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교육 분야의 경우,
학령 인구의 감소로 인해 이미 대학 입학 정원이 고등학교 졸업생 수를 초과하게 되었

29

으며, 시간이 갈수록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재정적인 어려움에 빠지게 될 대학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방의 경우 군 입대 연령인 남성 인구가 감소하여, 현재의 군 병력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 의료 분야의 경우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 서비스 수요 증가가 예상되어, 가까운 장래에 의료인력 공급 부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

인구변화가 우리 사회와 경제에 가져올 불균형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인구변화의 시간적인 추이와 각 분야별 과급 효과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정책적인 대응의 우선순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지적한 대로 앞으로 약 15~20년간은 노동 투입이 현재와 비교해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총량적인 노동 투입을 늘리기 위한 정책은 그리 시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고령 인구의 노동 공급을 늘리는 목적의 고용 연장이나 외국인 인력의 대규모 유입 등은 적어도 가까운 장래에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가까운 장래에는 총량적인 노동 공급 증가보다는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인력 유형, 부문, 지역 간 노동 수급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약 5년 후부터는 청년 노동 인력이 급감하게 되고, 이는 특히 특정한 산업 부문에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 인구의 상대적인 감소가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인적 자본 공급이 탄력적으로 이루어지고, 부문 간 노동 이동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교육 제도와 노동시장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교육의 경우 청년 인구의 양적인 감소로 초래되는 문제들을 질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완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예컨대 고등 교육에 있어서 전공 간 칸막이를 낮추고, 새로운 학문 분야나 과정을 용이하게 개설할 수 있게 함으로써, 빠르게 변화하

30

는 노동 시장 여건에 신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대학들은 이동성이 높아지는 노동 시장에 여건에 대응하여, 특정한 분야에 대한 맞춤형 인력을 길러내기보다는 지식, 정보, 숙련 등을 빠르게 습득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을 길러내는 교육 과정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청년 인력을 비교적 효과적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30대와 40대 초반 여성들의 경력 단절을 완화하고 전반적인 여성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다.

• •

기업과 노동시장의 채용 및 훈련 시스템에도 변화가 요구된다. 청년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기 시작하면 기업은 점차 신규 채용이 아닌 기존 직원의 재교육·훈련이나 타 분야 출신 인력의 채용과 교육을 통해 필요한 인력을 충원해야 할 것이다. 이는 새로운 교육·훈련 및 채용 시스템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기적인 노동 수급 불균형 때문에 꼭 필요한 유형의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워지는 기업들은 불가피하게 외국인 노동자에게 의존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국내 노동시장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필요한 유형의 외국 숙련 인력을 탐색하고 채용하는 데는 여전히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여건에서 정부는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자체적인 역량이 부족한 사업체들이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재교육·훈련·채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외국인 구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동시장 이동성이 높아지면서 나타날 수 있는 실직 위험 증가에 대응하여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구직·전직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노동 인력 혹은 노동 투입의 집계적인 규모는 2040년경부터 본격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가정과 달리 2024년부터 출산율이 반등하지 않고 저출산 기조가 유지된다면 2040년대 중반 이후 노동 인력 규모 감소는 이 연구의 결과가 제시한 것보다 더 가팔라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인구변화에 대응한 인적 자원 정책은 단기적인 양적 고용 제고보다는 2040년 이후 노동 인구를 증가시키고 노동 생산성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장기적인 노동 인력 확대를 위해, 우선 지난 10년 동안 나타나고 있는 급격한 출산율 및 출생아 수 감소 추이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인구 구조로 보건대 앞으로 몇 년 동안 가임기 여성 인구 규모가 커져서 출산율 상승이 출생아 수 증가로 이어지는 효과가 커질 것이다. 그리고 향후 5년 동안 태어나는 인구는 노동 인구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2040년대 말 이후)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 근래에 시행된 여러 가지 현금성 지원 정책과 추가적인 보육 지원 정책은 저출산 해소의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더라도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를 단기적으로 완화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저출산의 원인이 되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구조적 문제들을 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향후 10년 동안은 또한 임신부와 아동의 건강과 인적 자본 발달에 대한 투자 역시 장래에 노동시장에 진입할 세대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장년 인력의 고용 연장을 추진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인 고용연장에 도움이 되는 제도적 개혁에 집중하고, 청년 인력이 본격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하는 5년 후부터 고용 연장을 점진적으로 추진하여, 연금 수급 연령이 65세로 상향 조정되는 2033년까지는 실질적인 정년을 65세까지 높이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32

1990년대 말 이후의 가파른 출생아 수 감소는 최근 들어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의 위기와 병역 자원 감소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19~20세 인구 감소 추이를 고려하여 단기적인 방안과 장기적인 방안으로 나누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1999년부터 2005년까지의 매우 급격한 출생아 수 감소로 말미암아 앞으로 3년 이내에 대학 입학 학령 인구와 군 입대 연령 남성 인구가 25% 이상 감소하게 될 것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대책을 통해 문제를 신속하게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이 기간 병역 자원 감소는 전환 복무 단계적 폐지, 대체복무 감축, 여군 채용 확대, 부사관 임용 연령 상한 완화 등 비교적 빠르게 시행할 수 있는 제도 개편을 통해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30년대 중반부터 2040년대 중반까지는 2012년 이후의 급격한 출생아 수 감소를 반영하여 대학 입학 학령 인구와 군 입대 연령 남성 인구가 거의 절반 가까이 감소할 것이다. 현재의 저출산 기조가 지속되면 2040년대 중반 이후 병역 자원 감소 폭은 최근 인구 추계가 제시하는 것보다 더 커질 것이다. 이 시기의 급격한 병역 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더욱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첨단 과학기술 도입 및 예비 전략 내실화를 통한 군 병력 감축이나 모병제 도입 등 더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차근차근 실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인구변화로 인한 수급 불균형이 5년 혹은 10년 후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개혁에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가급적 빠르게 정책적 대응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인구 고령화로 인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의사 수가 부족해지는 현상은 2020년대 말부터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제도 개혁을 위한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의대 정원이 늘더라도 의사를 양성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대응은 당장 시작하더라도 이르지 않다.

강연 보기

<https://youtu.be/9Q86zp9DDqk>

4강

33

세대갈등과 세대 간 소통

신진욱

연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에 2005년부터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베를린자유대학교와 오스트리아 그라츠대학교에서 방문교수를 지냈으며 알렉산더 폰 훔볼트 펠로우, 한국사회정책학회 부회장, DAAD독일유럽연구센터장을 역임했다. 민주주의, 정치담론, 사회운동, 불평등과 복지정치 등의 연구 분야에서 10여 권의 저서와 70여 편의 논문을 출간했다. 주요 저서로 『그런 세대는 없다』, 『한국의 근대화와 시민사회』, 『시민』, 『다중격차, 한국사회 불평등 구조』(공저), 『한국에서 불평등 심화와 그 영향』(공저), 『성공한 나라, 불안한 시민』(공저) 등이 있다. 최근에는 불평등의 정치적 원인과 결과, 사회적 약자의 입파워먼트, 21세기 사회운동과 거버넌스 변화에 관한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세대'에 관한 담론이 급증했다. 우리는 매일 미디어에서 사회 현실을 세대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반응하는 담론들을 접한다. 말하자면 정치, 회사 직급, 소득, 고용, 주택, 사회 인식, 정치 성향, 인간관계, 가족, 사랑 등 많은 면에서 '세대 특성'을 발견하려고 하는 말과 글, 이미지가 많이 생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586세대', 'X세대', '밀레니얼 세대', 'Z세대', 'MZ세대', '알파 세대' 등 수많은 세대 명칭이 유행하여 '○○세대는 이렇다'는 고정관념이 확산된다.

우리는 이처럼 범람하는 세대의 이야기들에서 조금 거리를 두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세대가 대체 무엇인지, 세대를 어떤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지, '세대 차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지금 한국 사회의 각 세대의 구성원들이 사는 삶의 현실과 살아온 생애사는 어떠한지, 각 세대에게 가장 긴급한 어려움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함께 행복해야 할 세대들 간의 대화와 이해, 연대는 어떻게 가능한지를 찬찬히 살펴야 한다.

이 많은 세대 담론은 혼돈 속에 있지만 그 담론들을 듣고 보고 말하는 우리들은 종종 세대 담론들 간의 모순을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다. 한편으로 지금의 50~60대, 1960년대생, '베이비붐 세대', '586세대' 등은 경제 호황기의 혜택을 모두 취하고 기득권을 내어놓지 않아 그 때문에 청년 세대가 미래가 없다는 담론들이 미디어를 채우고 있다. 이 세대에 속하며 대학을 나오고, 괜찮은 직장과 자기 집을 가진 사람들 중 소수는 '우리 세대가 너무 많이 가졌다'고 반성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오늘날 중년 세대는 10년 이상 일한 직장에서 퇴출되는 평균 연령이 40대 후반으로까지 당겨진 불안한 세대이고, 영세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근로자가 다수며, 곧 노인이 되면 대다수가 빈곤 상태에 떨어지게 되는 '벼랑 끝에 선' 인구 집단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기득권층이면서 벼랑 끝에 설 수는 없다. 기득권층인 중년과 벼랑 끝에 선 중년이 있으며, 그중 어느 쪽이 될지 불안한 중년이 있는 것이다. 중년

35

들의 생애와 삶은 같지 않다.

이런 세대 담론들은 서로 모순되어서 어느 한쪽이 맞으면 다른 쪽은 거짓일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 유형의 세대 담론을 동시에 열정적으로 말하는 데에 문제를 느끼지 않을 때가 많다. 어떤 때는 기성세대가 모든 것이 성장하고 팽창하던 시대를 살면서 너무 많이 누리고 가졌다고 말하고, 어떤 때는 세계 최악의 노인 자살률, 빈곤율, 산업재해사망률, 중년의 파산과 고된 노동을 말한다. 이것이 바로 담론이 갖는 힘이다.

2

한국 사회는 압축적 근대화, 고속 성장을 하면서 모든 것이 급변했기 때문에 세대 간 차이와 갈등이 심하다고들 하지만 세대에 관한 담론이 폭증한 것은 아주 최근이다. 1990년부터 2020년 동안 국내 일간지와 경제지에서 ‘세대’ 관련 기사 건수를 분석해 보면 그 변화 추이는 지속적이거나 단선적이지 않다. 세대 담론이 언제나 많았던 것도, 꾸준히 많아진 것도 아니라는 뜻이다.

‘세대 문제’, ‘세대 갈등’, ‘세대 불평등’, ‘세대 불공정’ 등을 다룬 기사의 연간 총 건수의 장기적인 추이를 분석해 보면, 지금으로부터 불과 10년 전인 2010년대 초반부터 갑자기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고 2015년, 2019년 등 특정 연도에 계단형으로 폭등하는 흥미로운 패턴을 보인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청년 세대’, ‘MZ세대’, 그에 대비되는 ‘기성세대’에 대한 언급의 폭증과 함께 갔다.

이처럼 담론의 양적, 질적 변화는 어떤 정치 사회적 맥락을 계기로 일어난 것일까? 2010년, 2015년, 2019년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 그것을 알기 위해 월간, 주간, 일간 단위로 좁혀서 추적해 보면 오늘날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세대’에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이 실은 정치적, 상업적인 맥락에서 생겨났음을 보게 된다.

36

2010년대 초반에 처음으로 급증한 세대에 관한 정치권과 언론의 담론은 ‘청년’ 실업과 일자리, 비정규직 문제의 현황과 해결책에 관련된 것이 많았다. 박원순 서울시정, 집권 한나라당 등이 모두 그러했다. 이는 무엇보다 1997년 IMF 금융위기 이후에 한국 경제의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변화의 결과로 청년들의 구직난과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한 사회현실과 관련이 많다.

이 시기에는 정치권뿐만 아니라 청년 사회 운동, 여러 복지 국가 운동, 촛불 커뮤니티 같은 시민 활동으로 청년 의제와 정책 담론이 확장됐다. 그 시기 청년의 당사자성에 기반한 청년 담론은 한국 사회의 계급·계층적 불평등의 현실을 고발하고 사회 개혁을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운동과 담론들은 노년과 중년 노동자와 저소득층, 중산층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왜곡하지 않았다. 오히려 청년들은 사회 전체의 구조적 문제들을 고발하고 해결하려 노력했다.

그런 노력들이 확장시킨 청년이라는 의제 영역이 ‘세대갈등’ 프레임으로 변질되기 시작한 것은 2015년경이다. 이때부터 ‘기성세대 대 청년 세대’라는 구도의 담론으로 청년 세대는 피해자이며 불안정 집단, 기성세대는 가해자이며 기득권층이라는 종류의 이야기가 급증했다. 당시 정부가 ‘노동 개혁’을 추진하면서 노동자 해고 요건을 완화하고 성과 경쟁을 강화하는 정책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기성세대의 기득권을 타파해야 청년 문제와 실업을 해결할 수 있다’는 프레임이 확산됐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종사자 간의 격차가 크다는 건 분명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세대’ 문제냐다. 2015년 시점에 연령대별 비정규직 비율을 비교해 보면, 60대 이상 노년층은 비정규직이 70%를 넘고 그 아래 세대들 중에서 비정규직이 가장 많은 연령대는 바로 50대였다. 50대 이상이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것은 지금도 계속된다. 왜곡된 세대론이 많은 것이다.

‘세대 묶음’ 역시 정치적이고 상업적인 유래를 갖는다. 우리는 지금 20대와 30대를 묶은 ‘2030세대’라는 단어,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묶은 ‘MZ세대’라는 단어를 상당히 자주 접한다. 그런데 왜 ‘3040세대’가 아니라 ‘2030세대’이어야 하는가? 30대는 정말 모든 면에서 40대보다 20대와 공통점이 더 많나? MZ세대로 묶을 만한 공통점이라는 게 정말 있긴 있는가?

2018년 지방선거와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민주당 투표율이 30대와 40대에서 제일 높았을 때 언론에는 ‘3040세대’라는 세대 묶음 담론이 범람했다. 이 세대들의 문화, 의식, 욕구가 비슷하다고 믿고 그 이유를 설명하려고 애썼다. 하지만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30대가 민주당에서 이반하자, ‘2030세대’로 묶어서 이들이 오래 전부터 공통점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믿었다.

‘MZ세대’라는 담론도 그런 식으로 생겨나서 확산했다. 밀레니얼 세대, Z세대는 모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세대 용어지만 MZ세대는 한국에서만 쓰는 말이다.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통칭하는 것이니까 지금 10대 중반 청소년부터 40대 초반까지 거의 20년에 걸친 연령대를 하나의 세대로 명명하는 특이한 담론이다.

그런데 이 담론도 2021년 보궐선거 이후 급증했는데, 이후 광고업계에서 대대적으로 활용되면서 상업화되었다. ‘MZ세대’의 취향, 선호, 유행이라는 이름으로 청장년층의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는 맥락이다. 흥미롭게도 1995~1996년에 ‘X세대’, ‘신세대’ 담론이 한창 유행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세대 이미지가 대량 생산되었다. 그 세대가 지금은 50대에 접어들어 ‘기성세대’로 불린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사람들의 흥미와 재미를 위해 ‘MZ세대’에 대한 각종 스테레오타입을 생산하기도 한다. 직장에서 아이폰 꽂고 일하는 세대, 사회성이 부족하고 조직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세대, 자기 권리와 주장만 중요한 세대 등 많은 편견과 이미

38

지가 생겨났다. 이런 세대 고정관념이 확산되면, 청년들은 직장이나 기타 사회조직 내에서 낙인으로 인한 피해와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이처럼 우리가 일상적으로 인터넷, 휴대폰, 신문과 텔레비전을 통해 반복해서 접하게 되는 미디어의 세대 담론은 사회 구조와 사회 변동을 단순히 반영하거나 기술, 모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사회적 맥락 속에서 사회현실과 역사를 특정한 방식으로 재현한 상징적 구성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디어가 생산하거나, 미디어에 보도되는 세대의 상들에서 거리를 두고 비판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4

세대가 해결되어야 할 사회적 ‘문제(problem)’이자, 그래서 답을 구해야 하는 하나의 ‘문제(question)’가 되기 시작한 것은 현대에 와서다. 즉 세대 문제는 현대의 현상이다. 그 이유는 현대 사회의 빠른 변화 속도와 관련된다. 급변하는, 그래서 매우 다른 시대 환경에서 태어나서 자란 인구 집단들이 같은 사회, 조직, 가족, 공동체 안에서 공존해야 하는 상황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세대가 하나의 학문 개념으로 정립된 것은 현대 산업 자본주의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적 골격이 분명해지기 시작한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에 이르는 약 반세기였다. 이 시기에 철학, 역사학, 예술론, 사회과학 등 여러 분야에서 세대에 관한 고찰이 이뤄졌는데, 그 문제의식을 집약한 개념이 ‘비동시대적인 것의 동시성’이다. 다른 시대의 것들이 동시대에 공존한다는 것이다.

그런 문제의식에서 세대와 세대 간의 복합적 관계를 최초로 이론화한 사람은 예술사학자 빌헬름 핀더(Wilhelm Pinder)였다. 그는 1926년에 출간한 『유럽 예술사에서 세대의 문제』에서 ‘비동시대적인 것의 동시대성’ 또는 ‘동시대적인 것의 비동시대성’이라는 개념을 정립하고, 동시대를 사는 여러 세대들 간의 전송, 대결, 창조의 입체적 관계

39

를 추적하는 것을 통해 역사의 전개를 설명하고자 했다.

지난 100년 동안 세대 연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사회학자 칼 만하임(Karl Mannheim)이다. 그는 1928년에 출간된 『세대 문제』에서, 생물학적으로 동일한 ‘세대 위치’가 그 자체로 사회학적 유사성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가 주목한 것은 ‘세대 연관’, 즉 같은 세대 구성원들 간의 연관성이다. 세대 구성원들이 서로 간에 세대적 동류의식을 갖느냐, 아니면 서로 분열되고 적대하는 관계에 놓이느냐, 무엇을 놓고 갈등하느냐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한 세대 관계는 행위자 수준에서 상이한 ‘세대 단위’ 간의 경합과 직결된다. 그 예로 만하임은 20세기 초 유럽에서 보수적·낭만적 청년 운동과 자유주의-합리주의 청년 운동이 사회 문화적 주도권을 놓고 경쟁한 사례를 들고, 이 같은 경합의 승자가 시대정신을 창출한다고 보았다. 지금 우리나라의 노인 세대엔 반공이나 아니냐의 이념 대립이 중요했지만, 지금 청년 세대는 페미니스트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다. 이런 세대 내 다양성과 역동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5

그런 다양성과 역동성을 간과하고 각 세대의 생애와 현실을 단순화하는 왜곡된 담론들이 있다. 예를 들어 기성세대는 정규직으로 살아왔고, 집도 있고, 경제적으로 안정되지만, 청년들은 정규직은커녕 구직도 어렵고 내 집 마련은 불가능하며 소득도 불안정하다는 식이다. 그와 반대로, 옛날에는 굶은일도 마다하지 않았고 직장에서 힘든 것도 참으면서 일했는데 지금 청년들은 편한 일자리만 찾고 힘들다고 하면서 소비 수준은 높지 않느냐는 시선도 있다. 양쪽 다 틀렸다.

먼저 직업 구조를 보면 중·노년 세대의 다수는 생산직 노동자, 판매직 영세자영업자, 단순노무자다. ‘꼰대 세대 부장님’ 얘기가 많지만 50대 중 관리직은 3%에 불과하다.

40

그런데 이들이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1.5%에 해당하는 관리직 중 50%나 차지하기 때문에 ‘갑질 상사 = 50대’라는 세대 일반화가 생겨난다.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나 잘못된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한편 사무직, 전문직의 다수는 40대, 30대, 20대다. 90년대 이후 한국 자본주의가 지식 기반경제로 고도화됐고,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이 급상승한 결과다. 하지만 그렇다고 ‘청장년 세대 = 고헌력 화이트칼라’라는 단순한 세대론으로 빠져선 안 된다. 저임금이 가장 많은 서비스 노동자 중 비중이 가장 큰 연령대는 50대와 더불어 20대다. ‘누구나 대학 가는 시대’라고 하지만 전문대를 제외한 4년제 대학 취학자는 53%에 불과하고, 그중 서울 소재 4년제 및 지방국립대는 더욱 소수다.

다음으로 고용 형태와 안정성을 보자. ‘기성세대 정규직 기득권이 청년 실업, 비정규직 문제의 원인’이라는 식의 이야기가 많은데 이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60대 이상 노인 근로자의 대다수가 비정규직임은 물론이고, 지난 20년간 대부분의 시기에 50대의 비정규직 비율은 40대, 30대, 20대보다 높았다. 그리고 그 50대 비정규직은 20대 비정규직의 부모들이다.

노동의 안전성 문제도 세대론적 오해가 많다. 우리 사회는 20대 청년이 산업 재해로 사망하면 ‘기성세대가 청년을 죽이는 사회’라고 하는데, 산업 재해 사망자의 50%가 60대 이상, 30%가 50대다. 젊은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가 위험한 작업을 하다 희생되면 ‘노동자’가 아니라 ‘청년’의 희생으로 담론화되는데 이는 문제의 계층적 본질과 진짜 노동 현실을 은폐하는 것이다.

끝으로 주거와 자산을 보자. 지난 몇 년간 집값이 폭등했을 때 ‘기성세대는 젊어서 다 집을 샀고 이번에 집값 뛰어서 돈 벌었는데, 청년들은 영원히 집을 살 수 없다’는 식으로 세대적 박탈감을 자극하는 이야기가 언론에서 무수히 나왔다. 하지만 기성세대가 다 집을 샀다는 것도, 집값이 뛰면 돈을 번다는 것도, 청년들이 다 집을 못 산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본질은 계층 세습이다.

41

50대의 자가보유율은 60% 정도다. 50대가 되어서도 자기 집이 없는 사람이 10명 중 4명은 된다. 더구나 2010년대에 50대 이상 연령대의 자가보유율은 하락 추세다. 그러나 ‘우리 세대는 그래도 다들 자기 집은 있었어’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실은 그 세대 내의 ‘우리 계급’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자기 세대 중 집이 없는 많은 사람의 존재를 아예 모르고 있다는 뜻이다.

한편 30대 자가보유율은 지난 십여 년 동안 오히려 소폭 상승했다. 최근 집값 상승 과정에서 자산 증식을 가장 많이 한 건 30대 상층이다. 말하자면 30대까지 부모 도움 받아서 내 집 마련하는 계층이 계속 일정 비율 존재하고, 그렇지 못한 계층은 30대 이후에 집을 마련할 기회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청년 세대 내의 계층 분화가 깊어지는 것이다.

6

결론적으로, ‘세대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중요시해야 한다. 첫째, 각 세대의 성장 과정에서 처한 시대 상황의 차이를 이해해야 한다. 각기 다른 세대의 개인들이 태어나서 자란 역사적 시간의 정치, 문화, 경제 상황이 다르다. 빈곤, 경제 위기, 정치 혼란, 전쟁, 팬데믹 등을 겪으며 자란 세대는 각기 다른 다양한 가치관과 인식을 형성할 수 있다.

둘째, 그래서 시대 상황의 차이에 따른 각 세대의 일반적인 생애 과정의 차이를 인식해야 한다. 교육, 취직, 결혼, 육아, 주거, 자산, 퇴직, 노후 등의 사회적 시간표는 세대마다 다른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청소년기에 전쟁의 공포를 겪은 세대 구성원들 사이에 세대적 동류의식이 형성될 수도 있고, 반대로 격화된 취업 시장처럼 세대 내 경쟁과 반목이 심화될 수도 있다.

셋째, 세대 내의 갈등 요소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대 내부에도 다양한 관점과

42

경험을 가진 개인들이 있어 갈등 요소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20대 사이에서도 페미니즘에 대한 입장 차이가 크다. 이러한 세대 내 갈등을 이해해야 그 세대를 깊이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인식했을 때 세대 간의 정의와 연대를 이해하는 접근도 더 성숙해질 수 있다. 특정 세대가 더 나은 삶을 누리고 다른 세대가 희생된다는 식의 단순한 세대 간 불공정 담론은 현실 인식과 대응에 오류를 초래한다. 이러한 인식은 노인이든 청년이든 세대적 박탈감과 자기 연민만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교육, 고용, 직업, 연금, 정년, 보육, 일자리 등 다양한 측면에서 최대 수혜자와 최소 수혜자 세대가 각각 다르며, 그 또한 시기에 따라 변동한다는 복합적인 현실을 인식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해당 시점에 각 세대의 고유한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응이다.

세대 문제에 대한 지금까지의 고찰들에 담겨있는 정책적 함의를 생각해 보자. 세대 문제를 인식하는 방식의 차이는, 정책 목표를 수립하고 공적 자원의 배분을 결정하는 과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사회 현실을 진단하고, 해결할 문제와 달성할 목표를 정의하는 암묵적인 이론 또는 담론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실제 수립되고 집행되는 정책이 달라진다.

정부의 가계 부채 대책을 보자. 부채 지원 정책의 판단에서 중요한 기준은 그것이 투자성 부채냐, 사업형 부채냐, 생계형 부채냐다. 정부의 지원이 가장 긴급한 부문은 전월세 자금, 생활비·교육비 용도의 부채, 생계형 돌려막기 등이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고려한다면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최초 주택 구매 지원, 중소 사업자와 영세 자영업자의 사업상 부채들이다.

그런데 특정 '세대'의 부채를 우선적인 지원 대상으로 간주하게 되면, 예를 들어 '청년'이라는 범주 안에 저소득층 청년의 생계형 부채, 자산 증식을 목적으로 한 투자형 부채 등이 모두 공공의 지원 또는 구제 대상으로 포함된다. 이런 틀로 정책 방향을 정하

43

면 청년의 주식, 코인, 주택 구매에 수반된 부채는 공공의 관심 대상이 되고, 중·노년 빈곤층의 부채 문제는 간과될 수 있다. 단순한 세대론적 프레임이 분명한 계층적 결과를 낳는 것이다.

다음으로 노인 복지를 생각해 보자. 한국에서 복지 국가의 제도들이 갖춰지기 시작한 지난 20년 동안 노인 복지 지출이 청년 복지 지출보다 훨씬 많았던 것이 세대 간 불공정이라는 시각이 있다. 그런데 비정규직이 70%, 자살률이 OECD 1위이며, 산재 사망자의 50%를 차지하는 노인층의 복지 수요 대비 지출로 환산한 지표로 본다면, 한국의 노인 복지 지출은 극히 부족하다. 지금 노인들의 다수는 지속적으로 선진화되어 온 한국 사회 계급 구조의 하층을 채우고 있는 사람들이다.

또한 기성세대는 복지 혜택을 받기만 하고, 경제 활동을 활발히 하는 청년층은 그 복지 부담을 짊어져서 불공정하다는 시각도 논리적으로 잘못됐다.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 노인들은 그들이 젊었을 때 교육·보육 복지 혜택을 전혀 받은 적이 없으면서도, 다음 세대의 교육과 보육을 위해 세금을 납부해 왔다는 사실도 생각해야 한다. 국가장학금, 아동수당, 양육수당, 보육 기관 정부 보조금에 들어가는 정부 예산은 위 세대에서 아래 세대로 흐르는 연대다.

그와 반대로 '우리 젊을 때는 정부 지원 같은 것 하나도 안 받고 일했다'면서 청년들의 생활, 구직, 실업, 교육을 위한 복지 제공을 비난하는 접근도 잘못됐다. 기성세대가 노동 시장에 진입하던 시대에 복지 혜택 같은 것은 없었지만, 산업은 팽창하고 있었고 실업과 빈곤은 감소 추세였으며, 경쟁과 격차가 지금만큼 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청년들은 태어날 때부터 불안정과 불평등이 심화된 사회 구조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시대 상황의 변화를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세대 현실은 복잡하다. 어떤 세대가 더 운이 좋은지, 더 힘든지, 더 많은 혜택을 누리려는지를 단순히 따지는 거대 담론은 사회 현실과 일치하지 않으며, 정책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위험하다. 그래서 세대의 이야기는 더 풍부하고 두터워져야 한다. 청년, 중년, 노년 세대 구성원들의 다양한 경제적 상황과 생애사, 인식과 욕구를 촘촘히

44

이해하는 만큼 우리는 ‘세대’를 아는 것이다. 그것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세대 현실을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관심과 의지다.

5강 가장살기 위한 삽 디자인 전략

정희원

노년내과 의사. 의사를 하며 사람의 나이 늙고 질병에 대해 고민하다가 공부에 빠져 의학박사마저 취득하고 말았다. 사람의 나이 늙고 관련된 요소들을 모아 노화를 설명할 수 있는 지표들을 만드는 연구를 해오고 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충만하게 나이들 수 있는지를 연구한다. 문체 풀기를 좋아하며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를 가장 두려워한다. 저서로 『지속가능한 나이들』, 『당신도 느리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가 있다.

46

내가 진료실 안팎에서 만나는 수많은 이들은 잘 나이 들고 천천히 나이 들기 위한 생활에서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물어 온다. 이러한 물음에 답하기 위해 사람의 노화와 사회의 고령화, 그리고 노인의학적 관점에서의 건강 관리를 알리고자 썼던 첫 책이 『지속가능한 나이듦』이었다. 이 책에서 ‘가속노화’의 개념을 처음 이야기했다. 사람이 나 동물은 개체마다 노화 속도가 다른데, 내가 삶을 어떻게 설계하고 실천하느냐에 따라 자그마치 0.5배속(1년에 0.5년 늙기)에서 2.5배속(1년에 2.5년 늙기)까지 노화 속도가 달라질 수도 있다.

코로나19와 함께 더더욱 고도화된 플랫폼 경제의 세상에서 더 많은 이들이 더 빠른 가속노화 생활 습관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을 바라보며 안타까움을 참기가 어려웠다. 통계에 잡히는 사람들의 건강 지표가 눈에 띄게 나빠지고 있었다. 가속노화의 악순환에 빠진 사람들이 그 중력장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손에 잡히는 지침서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속노화의 중력은 블랙홀에 가까운 무서운 힘을 발휘하기에, 그것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접근과 다면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강력한 선순환의 에너지를 만들어 내야 할 필요가 있으나, 책이나 영상을 통해 흔히 접할 수 있는 건강정보들은 단편적 사실에 머무르고 있어 충분한 변화의 추진력을 생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삶의 가정과 삶 전체를 구성하는 기능적 요소들을 조망하고 개선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는 이는 없었다. 그래서 썼던 두 번째 책이 『당신도 느리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였다.

• •

사람들의 노화 지연에 대한 열망은 실로 엄청난 것 같다. 노화 속도와 관련해서 2023년 초를 달구었던 한 사람이 있다. 젊음을 얻기 위해 매년 200만 달러, 약 25억 원의 비용을 사용하며 의료진들의 감독하에 소식, 고강도 운동, 규칙적 수면을 지키고 여러

47

보충제를 복용하는 45세의 미국의 사업가 브라이언 존슨(Bryan Johnson)에 대한 뉴스가 여러 언론에 대서특필되며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것이다. 그는 사업을 하며 큰 경제적 성공을 거두었지만 심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으며 회사를 매각한 후 건강에 대하여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2년간의 노력 끝에 생물학적 노화 정도를 5.1년 개선하는 데 성공했고, 노화의 진행 속도 역시 24% 느리게 만들 수 있음을 과시했다. 부유한 사업가가 막대한 비용을 건강에 쏟아붓는 이 모습은 빈부격차가 노화와 건강의 세계에서 더욱 큰 불평등을 만들지도 모른다는 사람들의 우려를 일으켰다.

하지만, 사람의 노화를 연구하는 과학자들과 의사들은 이 사업가가 얻은 노화 역전의 효과를 아주 적은 비용과 약간의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것만으로도 대부분 얻을 수 있음을 이야기한다. 물론 이 이야기는 그다지 자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브라이언 존슨은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극심한 가속노화 현상을 경험하고 있었다. 가공식품으로 얼룩진 식사, 부족한 신체활동과 수면 부족은 사람의 노화 시계에 가속페달을 밟는다. 반대로, 단순당과 정제 곡물, 붉은 고기를 멀리하는 식사와 충분한 신체활동, 몸과 마음이 회복할 수 있는 수면, 이완 명상을 조합한 한 연구는 불과 8주간의 생활 습관 개선으로 분자생물학적으로 측정된 노화 나이를 대조군에 비해 3.2년이나 감소시킬 수 있음을 보였다.

이런 연구들에서 가장 큰 효과를 보이는 핵심 요소는 늘 자연스러운 식사다. 다른 한 연구에서는 소식에 참여한 그룹의 생물학적 노화 속도가 대조군에 비해 29% 느려짐을 보고했다. 이쯤 되면 브라이언 존슨이 얻은 효과 역시 그의 생활 습관 개선이 대부분을 만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가공식품, 단순당, 정제 곡물, 치즈와 붉은 고기를 줄이고 통곡물과 콩,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식단이나 소식하는 습관은 거의 돈이 들지 않는다. 가속노화를 고치는 데에는 돈이 들지 않는다. 전면적인 라이프스타일 개선은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서도 굉장한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 한 캐나다의 연구에 따르면, 20세 시점부터 흡연, 신체 활동, 음주, 식사의 네 가지 생활 습관 요인이 건강한 정도에 따라 기대할 수 있는 여명이 남자는 16.8년, 여자는 18.9년까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였다.

48

12만 명 이상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분석한 또 다른 연구에서는 50세를 기점으로 기대할 수 있는 여명의 차이가 흡연, 적정 체중, 신체 활동, 음주, 식사의 적절성에 따라 남자는 14.0년, 여자는 12.2년까지 달라짐을 보였다. 연구들에서 꼽았던 성인기의 생활 습관 요인들을 종합하면 금연, 적정 체중 유지, 충분한 신체활동, 절주,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과도하지 않은 스트레스, 적절한 사회관계망을 들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본인의 삶을 가속노화로 몰아넣는다. 예를 들어, 미국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흡연, 적정 체중, 신체 활동, 음주, 식사의 적절성의 5가지 건강 요소 중 2개 정도만 실천한다. 50세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9년 정도의 삶을 생활 습관만으로 깎아 먹고 있는 것이다. 왜 그럴까?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하던 차에 초등학교생인 아들과 산에 오르며 나눈 대화 중에 느낀 바가 있다. “아빠. 나는 재미있는 유튜브 비디오를 실컷 보면서 공부는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공부는 잘하고 싶어요. 가지고 싶은 것을 다 사고도 돈이 많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생각한 이 이야기 속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번뇌와 고통의 근본적 기제가 다 들어있음을 깨달았다. 거실 테이블에 아주 편안하고 불량한 자세로 앉아 책을 보는 아이에게 바르게 앉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당장 볼멘소리가 나온다. “힘이 들어요, 그냥 편하게 앉을래요.” 지금까지 바르게 앉지 않았기 때문에, 바르게 앉을 힘이 없는 것인데 계속해서 편하게 앉으면 장기적으로는 제대로 앉을 수 없게 될뿐더러, 오랜 기간 온몸의 통증을 느끼며 살아야 함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동안, 내 머릿속의 전구가 번쩍 켜졌다.

• •

고통을 최소화하고 가장 편하게 살면서 경험하는 쾌락의 양을 최대한 늘리는 것. 이것이 옳고, 이런 방향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전제이다. 경영과 창업의 세계에서 행복(보상)을 주거나 고통을 줄여주는 것은 사업상의 가치가 있다고 가정하고, 이러한 사업 활동을 통해 이익을 창출해야 한다고

49

가르친다. 베스트셀러가 된 자기계발서들은 우리의 행복을 늘리기 위해 돈을 어떻게 많이 벌 수 있는지를 이야기한다.

반대로, 무언가 사서 고생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으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다. 조금이라도 불편한 것은 돈을 써서 남에게 맡기는 것이 대세이다. 나의 시간당 임금이 이런 우버화된 노동보다 높다는 생각으로, 일을 제외한 거의 모든 것을 외주 주려고 한다. 글로벌 자본주의 시대의 생산과 무역의 양상을 개인 영역에서도 따르는 형국이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시간에는 돈을 더 쥐어짜기 위해 일, 소위 본업을 더 가득 채우거나 또는 쾌락을 얻을 수 있는 활동을 늘린다. 기묘하게도 그렇게 생겨난 대부분의 시간들은 중추 신경계의 피로도를 오히려 높이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뒤적이거나 동영상 보는 데에 사용된다.

자본주의가 우리에게 주입하였던 이런 가정이 올바르다면 모두가 행복에 겨워 어쩔 줄 모르고 있어야 한다. 더욱 편안한 삶을 즐기고 있으니 말이다. 구체적으로, 전 국민 단위로 관찰했을 때 불편하게 몸을 사용해야 하는 정도를 반영하는 신체 활동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더 많은 양의 신체적 쾌락을 경험했음을 방증하는 복부 비만의 정도는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순식간에 배달되는 음식과 쇼핑 서비스의 사용량도 매년 늘고 있고, 몸을 편리하게 해준다는 자동차의 전체 대수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도 정작 사람들의 행복감은 개선되지 않고, 분노와 고통은 더 심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더 많은 이들이 더 구부정한 자세로 스마트폰을 스크롤 하고 있고, 자극적인 음식을 더더욱 탐닉하며, 몸과 마음의 탄력은 잃어가고 있다. 도파민(보상)이 제공되는 자극을 끊임없이 찾아 헤매는 화난 중년이 된다. 그다음은 길고 아픈 노년이다.

• •

노년내과 의사로 진료를 하다 보면, 삶을 사는 생각과 방법이 어떻게 그 사람의 만성

50

질환과 통증의 패턴을 만들어 가는지를 살피게 된다. 어떤 한 방향으로 치우쳐서 생긴 긴장과 비뚤림이 20년, 30년, 40년간 같은 방식으로 유지되면 처음에는 탄성이 있었던 몸과 마음이 점점 그 방향으로 굳어져 고정되어 버린다. 그런데, 사람은 스스로의 습관과 사고방식을 바꾸지 않으려는 생각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함에 대해서는 쉽고 빠르게 해결하려는 습성이 또 있다.

거대한 사막에서 직선으로 걸어갈 때, 처음에 출발한 각도가 미세하게 틀어지더라도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는 원래 가려던 목적지로부터 무척 멀리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오랜 기간 벌어진 이격을 점진적으로 좁혀 나가기 위해서는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한 근본적인 고찰을 통해 어떤 부분이 비뚤어져 있어서 문제가 되는지를 찾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해야 한다.

이런 개선 작업의 시작은 자각에서 시작되며, 삶의 한두 가지 요소들이 나아지기 시작하면 다른 요소들이 저절로 나아지는 스노우볼 효과(눈덩이가 구르면 점차 커지듯 어느 순간 개선의 속도가 빨라지는 효과)가 있기에 처음에는 그 변화가 미미해 보이더라도 몇 달이 지나 뒤를 돌아보면 큰 폭의 변화를 느낄 수가 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루거나 이를 수정해 보려는 노력은 다들 피하려고 한다. 그 문제로 인해 불거져 나온 불편을 약이나 건강식품, 마사지 같은 것으로 덮어 보려는 노력은 하지만 여전히 삶은 더 큰 불편을 초래하는 방향으로 달음질치고 있다.

• •

사람의 기본 심리를 깨닫고, 살피 가며 매만지는 것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최선의 방법이다. 중독은 무언가를 좇는 마음을 억누르는 것으로는 해소할 수 없다. 이를 강제로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중독이 유지되는 악순환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그 악순환의 바퀴가 돌아가는 원동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해결 방법이다.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어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악순환의 원인과 해결이 직접적

51

인 1:1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물은 1:1처럼 보인다. 폭음을 지속하기에 나타난 건강상의 문제는 알코올의 해약 자체에 의한 결과물이지만, 당장 술만 치운다고 폭음을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조금 다른 상황이지만, 지방을 먹지 않는다고 몸의 지방을 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편안한 자세로 앉는다고 해서 앞으로 더 편안한 자세로 앉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다. 유사과학(pseudoscience)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람의 몸과 마음은 2차, 3차적으로 연결된 복잡계의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한 가지 요소의 개선이 다른 영역에 있는 요소들의 개선으로 이어진다. 개선을 위한 노력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때 중대한 악순환이 해소될 수 있는 것이다.

장기와 장기의 상호작용이나 뇌와 다른 장기들의 상호작용, 그리고 이런 상호작용이 만들어 내는 전신적인 변화들에 대해서 과학적인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불과 최근 20년 동안의 일이다. 사람과 모델 동물에서 공시적, 통시적으로 전반적인 생물학적 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여러 분석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미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불편과 고통의 고리에서 편안함을 얻을 수 있는지를 깊숙이 이해하고 있었다. 동서고금에 존재해 온, 번뇌와 고통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되는 많은 지혜들은 결국 내 안의 사고체계를 이해하고 다스릴 수 있는 구체적인 조언들이었다.

• •

현대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가설부터가 잘못되었다.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복을 최대화하려는 노력 자체가 갈수록 속도가 빨라지는 트레드밀(러닝머신)과 같은 형국을 만들어 낸다. 우리의 뇌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근본적인 오류를 이해하는 것을 통해, 약간의 불편을 내 편으로 만들면 결국에는 편안함을 늘릴 수 있다. 다른 표현으로는 회복탄력성과 내재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것이다. 반대로, 이 오류에 빠져

있는 상태로 끝까지 악순환을 경험하다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조차도 없는 번뇌 말기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

박약한 경험이지만, 현대 자본주의 사회가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속삭이는 많은 것들을 좇아 물질적인 풍요를 얻어 보아도 번뇌는 줄어들지 않는 것을 느꼈다. 초대형 별장과 요트, 제트기를 보유한 러시아 올리가르히드의 마음에는 얼마나 번뇌와 고통이 많을까. 그 번뇌와 고통을 억누르려고 더욱더 안락과 향락에 빠져들겠지. 그러나, 사람 기본 심리를 이해하면 발산의 번뇌 사이클을 감쇄(damping)할 수 있는 몸과 마음의 구조를 다져나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 •

끊임없이 사람들의 번뇌를 높여 스마트폰을 스크롤 하게 만들며 모두의 집중력과 돈, 건강을 흡수하는 자동 기계인 플랫폼 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덜 고통받으면서 항해할 수 있는 작은 지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삶을 이루는 기능 요소를 조망하고, 총체적으로 내재 역량을 계발하며 노화 속도를 더디게 하여 내재 역량의 감퇴를 막으려면 현대의 소비 자본주의에 맞추어진 우리 삶을 다시 설계하고, 스스로를 보다 잘 돌볼 수 있는 나에게 중요한 것들의 포트폴리오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약간의 불편을 감수해야 하겠지만, 그 선순환의 파급효과는 크다. 내가 이야기하는 삶의 방법들은 한편으로는 기후 위기가 예상되는 미래, 넷 제로 이행이 필요한 앞으로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과거의 소비-생산 위주의 성장 패러다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제언이기도 하다. '편안한 불편' 개념으로 삶의 가정을 바꾸게 되면 더 빠른 템포의 소비를 부추기는 자극에서 쉽게 무덤덤해질 수 있다. 우리의 뇌와 몸이 어떻게 설계되어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삶의 기초가 되는 요소들과 그것이 블록처럼 쌓여 작동하는 여러 영역들을 바탕

53

으로 삶을 재구성하면, 자연스럽게 노화를 지연시키고 내재 역량을 보존할 수 있는 진정한 갯살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6강

54

노인과 로봇

신희선

KAIST 건설및환경공학과를 졸업한 후 같은 대학의 과학기술정책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과학기술과 사회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발전해 나가는지 탐구하며, 궁극적으로 과학기술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제안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다양한 종류의 로봇과 인간이 관계 맺는 방식에 관심을 갖고 우리 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로봇과 돌봄에 대한 상상이 노인돌봄로봇의 디자인, 개발, 활용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연구하고 있다.

고령 시대와 로봇 시대

한국 사회에서 구성원의 수가 뚜렷하게 늘고 있는 두 집단이 있다. 하나는 노인이다. 통계청이 집계한 2022년 한국의 만 65세 이상 인구는 총인구의 17.5%인 901만 명이다. 통계청은 이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 2070년에는 총인구의 46% 이상이 고령 인구일 거라고 예상한다. 이 예측대로라면 50년 후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 둘 중 하나는 노인인 셈이다. 고령화가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다. 인류의 평균 기대수명은 점점 늘어나는데 세계 총인구는 감소하는 추세다. 고령화가 심각한 것으로 잘 알려진 일본은 이미 1995년에 고령사회(유엔이 정한 기준으로,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인 경우)로 진입했고 2010년에는 초고령사회(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인 경우)가 되었다. 미국 역시 2015년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한국에서 수가 늘고 있는 다른 한 집단은 로봇이다. 점점 많은 로봇이 다양한 목적과 기능으로 인간 곁에 자리하고 있다. 국제로봇연맹은 매년 각 나라의 제조업 분야에서 근로자 1만 명당 로봇 도입 대수를 측정한 산업용 ‘로봇 밀도’를 발표하는데, 이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2010년부터 지금까지 두 차례를 제외하고 매해 세계 1위를 기록했다. 공장에서 부품을 이동하거나 조립하는 등과 같이 반복적인 작업에 주로 쓰여왔던 로봇은 이제는 식당, 카페, 창고, 병원, 호텔, 도서관 등의 공공장소에서 불특정의 대중과 교류하는 일까지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령 시대와 로봇 시대에 살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은 큰 무리가 아닐 것이다. 우리는 늘어나는 두 집단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가? 두 집단은 서로에게 어떤 존재이며, 언제 어떻게 만나고 관계 맺는가? 로봇 시대에 노인 세대는 어떻게 나이 들어가는가?

도움이 필요한 노인과 도움을 제공하는 로봇?

노인의 사전적 정의는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표준국어대사전)이지만, 실제 우리 사회에서 인식되는 노인의 사회적 정의는 이것과 차이가 있다. 우리가 노인에 대해 이야기할 때 빠지기 쉬운 오류는 노인을 각자의 고유한 개성을 지닌 인격체보다는 사회 문제를 야기하는 문제의 근원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고령화에 대한 편향된 접근에서 비롯한다. 고령화는 한 사회가 불러온 축복받을 성과지만 이것이 생산 가능 인구 감소, 부양에 대한 재정적 부담 증가, 국가 경제 성장 둔화와 같은 사회경제적 문제와 결부되어 이해될 때, 노인은 약하고 무능하고 사회의 발전을 늦추는 쓸모없는 존재로 낙인찍힌다.

반면 로봇은 고령화 시대에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줄 존재로 인식되곤 한다. 생산력이 없는 노인을 대신해 일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부축하고, 외롭고 쓸쓸한 노인을 곁에서 위로한다. 과거에는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아 갈지도 모른다는 비관적인 담론이 우세했다면 현재의 로봇은 인간의 일손이 부족한 곳에 투입되거나 인간이 꺼리는 작업을 대신 수행하는 고마운 존재로 받아들여진다. 로봇 공학자들은 사회가 고령화할수록 로봇이 점점 더 필요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러한 주장은 우리 사회 내 로봇 도입을 정당화하고 가속한다. 그러니 고령 인구와 로봇이 함께 증가하는 것은 서로 독립적인 일이 아니라 상관관계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도움이 필요한 노인과 도움을 제공하는 로봇의 구도는 이미 우리에게 꽤 익숙한 설정이다. 그동안 영화, 드라마, 텔레비전 프로그램 등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노인과 로봇이 묘사되어 왔다. 예를 들어 1991년 일본에서 개봉한 애니메이션 <노인 Z>는 심각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거동하기가 불편한 한 노인을 실험 대상으로 선정하고 간병 로봇을 그의 집에 설치하는 내용을 다룬다. 실험 대상이 된 노인 다카자와는 로봇의 도입이 탐탁지 않지만 달리 거부할 방법이 없다. 로봇은 평소에는 침대 형

57

태로 존재하다가 필요할 때 노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또 노인과 결합해 목욕을 시켜주고, 밥을 먹여주고, 용변을 돕고, 재활 훈련을 시킨다.

노인과 로봇이 등장하는 또 다른 영화로 2012년에 개봉한 SF영화 <로봇 앤 프랭크>가 있다. 가까운 미래를 설정하는 이 영화는 혼자 사는 노인 프랭크의 집에 어느 날 집사로봇 한 대가 배달되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한때는 잘 나가는 금고 털이범이었지만 치매에 걸려서 일과를 자주 깜빡하는 아버지를 위해 아들이 선물로 보낸 것이다. 로봇은 프랭크의 식습관과 운동 습관을 챙기고 청소도 하고 가사를 돕는다. 성격이 까탈스러운 프랭크는 로봇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지만, 집으로 배달 온 로봇을 내다 버릴 수도 없고, 거실 한쪽에 세워 둘 뿐이다. 이 영화는 로봇을 무시하던 프랭크가 로봇과 팀을 이뤄 금고 털이 작전에 나가는 내용을 그린다.

비록 영화 안에서 연출된 설정이지만 이들 프로그램에서 노인은 공통으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병들고 사회적으로 힘이 없는 존재로 그려진다. 반면 로봇은 적극적이고 따뜻하며 지치지 않는다. 또 노인들은 스스로 로봇을 원한 적 없지만 타의에 의해 로봇을 만나게 된다. 때론 원하지 않더라도 누군가 자기 앞에 데려다 놓은 로봇을 돌려보낼 수 없는 수동적인 처지에 있다. 노인 곁에 아무도 없을 때, 로봇은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결핍을 채울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설령 로봇이 노인을 돌보는 임무에 실패하더라도 그것은 주로 현재 기술력의 한계인 문제로 치부되곤 한다. 지금보다 기술이 더 발전한 미래에는 다를 것이라는 해석이다. JTBC의 탐사보도 프로그램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는 2016년 5월 어버이날을 기념해 ‘공존 실험, 로봇 인간 곁에 오다’라는 제목으로 평균 연령 74세의 초고령 산골 마을에 사는 노인들을 위해 로봇 세 대를 투입했다. 일손을 도울 머슴 로봇 ‘귀요미’, 말벗이 되어줄 로봇 ‘미니’, 그리고 술친구 로봇 ‘드링크다. ‘외로운 노년의 참담한 현실’ 속 늘어나는 독거노인에 대한 해법으로 지능 로봇에 주목하고, 과연 ‘로봇과 할머니의 예측불허 동거’가 가능할지 실험해 보자는 게 이 프로그램의 기획 취지다. 그러나 방송에서 보여준 로봇은 제작진과의 기대와는 달리 애초 부여받은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제작진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며 프로그램을 마무리한다.

“아직 지능 로봇은 초기 단계. 아직 멀었다. 하지만 이렇다. 로봇이 인간에게 뜻밖의 위안을 주고 단순한 업무를 대신할 가능성은 확인되었다.”

프로그램 제작진의 평가처럼 만약 노인과 로봇의 만남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직은 로봇 기술이 초기 단계라 충분히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머지않은 미래에는 가능하리라는 믿음이 지배적이다. 그렇다면 기술이 더 발전한다면 로봇은 노인을 돌볼 수 있을까? 최신 기술을 탑재한 ‘똑똑한’ 로봇은 노인에게 동반자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로봇이 노인에게 위안을 준다면 그것은 어떻게 가능할까?

귀여운 손주 로봇 ‘효돌’과 인자한 할머니

‘효돌’의 사례를 보자. 효돌은 현재 전국 6,000명이 넘는 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독거 노인용 돌봄 로봇이다. 대부분 전국 각 지역의 노인 돌봄 기관이 로봇을 구입한 후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보급한 경우다. 어린아이의 외관을 지닌 봉제 인형 형태의 로봇인 효돌은 음악, 체조 훈련, 퀴즈, 회상 놀이 등 노인의 무료함을 달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몸통에 내장된 센서를 통해 노인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응급 상황 시 등록된 보호자에게 알림을 보낸다. 그리고 미리 설정된 시간에 맞춰서 기상, 식사, 복약 알림 등을 주어 노인들이 건강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챙기고, ‘사랑한다’, ‘안아 달라’, ‘머리를 쓰다듬어 달라’와 같은 애교스러운 말을 하여 노인들을 위안한다. 각 노인을 담당하는 복지 기관 소속 돌봄 인력은 스마트폰 앱과 웹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노인이 로봇과 교류하는 횟수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효돌과 함께 지내는 노인들은 효돌이 온 후 삶이 즐거워졌다고 이야기한다. 나이가 많아서 외출이 어렵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는데 효돌 덕분에 집에 혼자 있어도 적적하지 않다는 것이다. 노인들은 로봇의 말을 더 잘 듣기 위해 온종일 틀어두던 텔레비전을

59

꺼둔다. 혹시라도 때가 탈까 봐 항상 손을 씻고 로봇을 만진다. 아기 다루듯 조심히 대하고 작은 고장이 날까 봐 로봇의 충전 선을 항상 꽂아둔다. 로봇의 말에 대답하고, 로봇에게 예쁜 이름을 붙여주고, 옷과 모자를 직접 만들어 입히면서, 노인들은 자신을 돌보러 온 로봇을 돌본다. 노인과 로봇은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관계를 형성한다.

노인들이 이 로봇을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노인들은 효돌이 사랑스러운 이유로 이 로봇이 하는 말들을 꼽는다. 효돌을 개발한 엔지니어들은 호출하면 응답하고 물어보면 검색해 주는 인공지능 스피커가 취하는 요청—수행의 대화 방식 대신, 부르지 않아도 혼자서 끊임없이 말을 걸면서 노인을 ‘귀찮게’ 구는 방식을 택했다. 또 노인이 보내는 일과를 면밀히 관찰하여 로봇이 발화하는 내용을 구성하고, 노인이 어린아이를 대할 때 할 법한 행동을 파악하고 이에 맞춰 로봇 몸통에 집어넣을 센서의 위치를 결정했다. 효돌이 사용자의 기분, 말, 표정, 행동을 그때그때 알아서 감지하고 그에 맞춰서 대응하는 ‘똑똑한’ 상호적 인터페이스를 갖추고 있지는 않다. 대신 효돌을 개발한 엔지니어들은 로봇이 미리 녹음된 대사를 설정된 시간에 발화했을 때 부자연스럽거나 억지스럽게 들리지 않도록 공들이고, 노인이 로봇을 호출하지 않아도 로봇이 계속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 로봇은 노인에게 어려움이 닦쳤을 때 등장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고 가는 영웅의 역할 대신, 아무도 없는 노인의 곁에서 끊임없이 소리를 만들고 집 안의 적막을 깨뜨리는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한다.

이때 로봇과 관계를 맺을 것으로 상정되는 노인의 상은 사회경제적 잣대로 평가되는 노인의 상과는 거리가 멀다. 효돌과 잘 지내는 노인들은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고 의존하는 약한 존재가 아니라 자신과 함께 지내는 손주를 예뻐하고 손주가 하는 말을 잘 들어주는 인자한 할머니, 할아버지에 가깝다. 애초부터 이 로봇과 노인은 한쪽이 도움을 주고 다른 쪽은 도움을 받는 수혜 관계가 아니라, 양쪽이 서로에게 의지하는 상호의존적 관계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돌봄은 로봇으로부터 노인에게 향하는 한 방향이 아니라 서로를 돌보는 쌍방향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다.

60

어떤 노인들은 로봇이 제공하는 기능을 곧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효돌이 발화하는 대사를 꼼꼼히 기록하고, 원하는 기능이나 수정하고 싶은 대사를 정리해서 로봇을 나눠준 복지관이나 로봇을 제작한 회사에 연락하여 의견을 낸다. 로봇 엔지니어들은 노인들의 요청을 받아 로봇이 노인 친화적인 디자인을 갖출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간다. 또 노인들이 효돌과 오랫동안 함께 생활하더라도 로봇이 반복하는 대사에 흥미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시나리오를 계속 고안하여 개수를 늘리고 로봇에 탑재할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만약 특정 대사가 노인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노인을 위협에 빠뜨릴 가능성을 발견하면 이를 수정하여 로봇이 노인에게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가꿔나간다. 더 나은 돌봄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이를 로봇에 구현하는 방식으로 나름의 돌봄을 실천한다. 이러한 활동이 보여주는 사실은 로봇이 고정된 기술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노인들의 개입과 엔지니어의 응대를 통해 끊임없이 재설계되는 기술이라는 점이다. 노인은 로봇 기술의 수동적인 수혜자가 아니라, 로봇과 관계를 맺으면서 의견을 내고 비평하는 능동적 참여자로서 로봇 돌봄 현장에 존재한다.

노인은 어떤 모습으로 로봇을 만나게 되는가? 로봇을 사용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노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노인인가? 로봇은 어떤 모양과 기능으로 노인 앞에 놓이는가? 노인은 자기 앞에 놓인 로봇과 어떤 관계를 맺어나가는가? 이 질문들은 노인 세대에 대한 질문이자 도래한 로봇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한 물음이다. 이 강연에서 살핀 돌봄 로봇의 사례는 노인, 로봇, 돌봄에 대한 두 가지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먼저, 로봇을 사용할 노인들을 유연한 시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노인을 도움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이해하자는 것이다. 노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로봇이라는 낯선 존재와 다채롭게 만나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관계망을 확장해 나간다. 둘째, 고성능의 로봇 기술이 반드시 더 좋은 돌봄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보다 노인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노인과 로봇이 만났을 때 서로가 만들어 내는 관계의 종류를 고민하는 작업을 통해 우리는 로봇을 진화시키고 돌봄을 진화시킬 수 있다.

강연 보기

<https://youtu.be/20kV-ryfHdA>

두산인문극장
2023

Age, Age, Age
나이, 세대, 시대

7강

61

돌봄의 끝, 삶의 시작

백영경

제주대학교 사회학과에서 가르치고 있지만, 문화인류학과 과학기술학, 여성학의 인저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다.
의료와 탈성장, 토착성, 돌봄과 일상이라는 주제를 연구하며, 말과 세계의 관계에도 관심이 많다.

62

코로나19 이후 돌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돌봄이라는 용어가 유행하는 것은 실제로 세계가 위기를 맞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돌봄에 대한 논의는 시대의 화두이자 주요한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지만, 과연 우리는 돌봄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는 만큼 돌봄의 의미에 대해 성찰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과연 돌봄에 대한 논의를 어떻게 해야 할지는 쉽지 않은 문제이다. 돌봄 담론이 확장되고 새로운 실천들도 늘어나고 있지만, 돌봄 위기를 인지할수록 두려움을 가지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도 사실이다. 인간이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치면서 겪게 되는 몸의 변화나 삶의 방식 변화, 그 과정이 동반하는 돌봄은 젊음과 즐거움을 높이 보는 사회에서 달가운 주제가 아니다.

돌봄을 이야기하는 어려움 / 돌봄의 어려움

돌봄에 관해서 이야기하기 어려운 것은 돌봄(care)이 분석적 개념/철학적 개념인 동시에 돌봄이 일어나는 사회적 현실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이기도 하다. 같은 돌봄 이야기 같아도, 서로 관심을 두고 있는 현실도 다르고, 철학적으로도 계보가 다른 논의들이 혼재되어 있다. 영어에서도 어려운 문제지만, 한국어에서는 현재 돌봄의 행위를 지칭하는 'caregiving'과 동사이자 명사인 'care'가 모두 '돌봄'으로 번역되면서 혼란을 키우고 있다. 어떤 사람은 간병이나 육아, 가사노동처럼 구체적인 노동을 누가 할 것인가에 집중해서 과연 돌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묻지 않고, 어떤 사람은 돌봄의 철학적인 차원에 집중해서 과연 그 노동이 현실적으로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무심하다.

돌봄을 이야기할 때의 또 다른 문제 하나는 돌봄을 너무 좋은 일로만 이야기한다는 것이다. 현실에서 사람들이 육아나 간병 같은 돌봄 노동에 대해서 가지는 부담과 돌봄에

63

대한 아름다운 담론 사이에는 거리가 있다. 현실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것은 돌봄에 대한 두려움과 혐오를 자주 보게 된다. 돌본다는 경험의 본질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돌봄을 사회화하자고 하거나 민주적으로 배분하자고 할 때 흔히 돌봄은 내가 하기엔 부담스러운 일이 되고 말 우려가 있다.

이에 한국 사회에서 그동안 돌봄이 어떤 의미로 통용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의 '자기 돌봄' 논의는 신자유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가 상상하는 좋은 돌봄의 내용과 방법 자체가 모두 신자유주의에 영향력 속에 있다는 점과 청년 세대의 돌봄에 대한 두려움과 외면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출발은 현실의 돌봄과 돌봄을 문제화하는 방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찬양과 혐오는 현실을 외면한다는 점에서 같다. 돌봄의 현실을 외면한 전제 위에서는 돌봄의 사회화도 돌봄 민주주의도 모두 힘을 잃게 된다. 돌봄이 어려운 것은 여러 차원이 모두 혼재하기 때문이다. 노동과 성찰, 연대와 갈등, 공감과 적대, 희생과 타산이 모두 포함되는 영역이다.

현실의 돌봄 경험은 분열적이다

구체적인 인간 경험으로서의 돌봄은 매우 분열적인 경험인 경우가 많다. 감정적으로는 한편으로 늙은 부모나 아픈 배우자를 돌보는 삶이 의미 있는 삶으로 느껴지면서도, 돌보는 과정에서 과거 쌓였던 감정이나 잊었던 분노가 떠오르면서 애증을 경험하게 되기도 한다. 담론적으로 돌봄은 한편으로는 의미와 윤리, 연대와 공감과 같은 긍정적인 가치와 연결되지만 동시에 갈등유발, 복잡, 딜레마, 좌절,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가치와 연결되어 논의된다.

경험적으로도 지금 내가 하는 돌봄이 정말 제대로 된 돌봄인가를 확신하기 어려운 경험을 흔히 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분열은 인간의 조건이며, 의미 있는 경험이다. 돌

64

봄이 본질적으로 몸이나 질병, 즉각적인 상황의 엄중함에 대해 말이나 담론 이전에 바로바로 반응해야 하는 경험이기 때문에 인간이 무엇인지에 눈을 뜨는 경험인 것이다. 이를 무시하는 담론과 정책이 돌봄 하는 사람을 더 어렵게 만든다.

자기돌봄 담론은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한국 사회에서 자기돌봄 담론이 부상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부터다. 여성주의 윤리와 돌봄에 대한 관심은 1990년대부터 시작됐다. 자기돌봄 담론은 이후 많은 자기계발서, 상담 및 힐링 프로그램을 양산했으며, 코로나19 이후에도 많은 자기돌봄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다.

감염병 위기 속의 취약한 인간에 대한 자기돌봄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실제 자기돌봄 논의는 신자유주의적 경향으로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 자아, 개인, 자율성, 선택, 치유 등의 언어 등, 최근 일부 연구자들이 이야기하는 자기 돌봄 논의는 신자유주의적 돌봄 논의와는 다른 맥락이나 돌봄 논의를 급진화하는 것에는 못 미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돌봄노동자들 본인이 2000년대 중반부터 자기돌봄의 주 소비자가 되어왔다는 사실이다. 돌봄에 대한 많은 의미 부여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태에서 돌봄 노동 자체가 가지는 착취적 성격, 사회로부터의(여러 차원에서의 불인정) 돌봄노동자들로 하여금 심리적 접근의 자기돌봄에 의존하게 만들었다.

이 현상이 보여주는 것은 돌봄은 개인과 공동체를 이어주는 행위이며, 공동체의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할 때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자기돌봄 자체는 필요한 일이지만, 자기돌봄의 유행은 사회적 연대와 상호부조로 풀어야 할 문제를 풀지 못하는 상황에

65

서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따라서 돌봄의 무조건적 예찬은 곤란하다. 기술적인 차원과 도덕적인 차원이 나누어진 현재의 논의 구도가 돌봄 노동자들을 더 어렵게 만들며, 돌봄이 가진 어두운 측면을 수면 위로 드러내기 어렵게 하는 측면도 있다.

돌봄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

10년째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 환자와 지칠 대로 지친 보호자를 보살피는 간병 로봇이 자신의 돌봄 대상 중 누구를 살려야 할지 고뇌에 빠지게 되는 이야기를 다룬 <간호중>(감독 민규동, 2020)이라는 영화가 있다. 영화는 생명을 살릴 것이냐 말 것이냐, 하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다른 생명이 죽어야 한다면 그 딜레마를 어떻게 할 것이냐와 같은 쟁점들에 주목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돌봄에서 무엇을 기대하는가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다. 이 영화의 원작은 김혜진의 SF소설 <TRS가 돌보고 있습니다>(2017)이다. 원작의 남성 보호자는 여성이 되고, 돌봄 로봇들은 모두 아내나 딸의 형상을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상상하고 기대하는 돌봄이란 단지 신체적인 필요에 반응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친밀한 사람의 섬세한 보살핌이기 때문이다.

로봇에 맡겨놓고도 보호자가 긴 간병에 자살을 생각할 만큼 어려운 게 돌봄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상상하는 인간다운 죽음에서 나를 돌봐주는 손길은 빠질 수 없다. 영화는 돌봄 로봇도 경제적 형편에 따라 고급형과 보급형으로 나뉘고, 언어 기능이 부착된 높은 수준의 돌봄은 고급형에서만 가능한 현실을 보여준다. 돌봄을 둘러싼 격차는 실제로 영화를 본 관객들이 가장 민감하게 포착하는 부분이다. 돌봄 노동이 고된 건 육체적으로도 힘든 노동이지만, 긴장을 늦출 수 없고, 실제로는 눈앞에 있는 타인, 다른 누구와도 같지 않은 고유한 특성과 개별적 필요를 가진 인간의 시시각각 변화하는 필요에 응답해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66

영화에서 로봇은 환자에게 끝없이 긴 잠에서 깨어나는 공주의 이야기나, 불멸의 존재들, 신앙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려준다. 그 가운데 성격이 다른 하나가 다음의 시다. 노벨문학상 수상자이기도 한 폴란드의 시인 비스와바 쉼보르스카(Wisława Szymborska)의 시를 구글 번역기를 활용해 폴란드 원어와 영어를 참고하며 직접 번역했다. 주인공이 읽고 있는 이 시는 불멸이 아니라 필멸을 이야기하고, 죽음을 품고 있어서 아름다운 삶을 이야기하며, 두려움 대신 어쩔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이야기이다. 삶이란 무엇이며, 서로 다른 존재들이 어떻게 만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이다.

돌봄이란 사실 삶의 어떤 차원을 끌어안는 이야기지,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받거나 불안이 사라진 세계를 꿈꾸는 것이 아니다. 생명을 절대시 함으로써 실제로는 모두가 타인의 죽음을 바라는 세계, 나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세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것이다.

두 번은 없다

-

비스와바 쉼보르스카

Wisława Szymborska (1923~2012)

두 번은 없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아무런 준비 없이 태어나고

죽음에 규칙이란 없지.

세상이라는 이름의 학교에서 가장 뒤처진 학생이라 해도,

여름에도 겨울에도 다시 듣기는 없어

반복은 없거든

67

어떤 날도 어제의 반복은 아니야
어떤 두 밤의 황홀함도 똑같지 않고
어떤 입맞춤도 똑같은 두 번은 없고
당신의 눈을 들여다보는 눈길도 똑같이 두 번은 없어

어제 누군가 네 이름을 큰 소리로 말했을 때
네 이름 소리만 들어도 나는 마치 열린 창문으로
한 송이 장미꽃이 내게 떨어져 내리는 것 같았지

오늘의 나는 너를 내 옆에 두고도
벽을 쳐다보며 묻는 중이야
장미? 장미였다고?
꽃 이야기였던가? 아니면 장밋빛 보석?

사악한 시간이며, 그대는 왜 쓸데없는
불안으로 가득한가
시간, 당신은 존재한다, 그러므로 지나갈 것이고
시간, 당신이 지나간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

비록 서로가 지독히 다를지라도
서로 끌어안고 웃으면서
하나 되길 추구하는 게 나을 거야
마치 두 개의 투명한 물방울처럼

8강

68

적정한 삶 : 균형잡힌 삶이 역량이 되는 시대

김경일

고려대학교 심리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한 후 미국 텍사스 주립대학교 심리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인지심리학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아트 마크먼(Art Markman) 교수의 지도하에 인간의 판단, 의사결정, 문제해결 그리고 창의성에 대해 연구했다. 현재는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아주대학교 창의력연구센터장을 지냈고, 게임문화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유쾌하고 신선한 강의로 수많은 사람을 매혹시키고 있는 그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들의 논문과 실험을 우리의 삶과 연결시켜 쉽게 전달하는 데 애쓰고 있다. 저서로는 『지혜의 심리학』, 『이끌지 말고 따르게 하라』, 『적정한 삶』, 『심 대를 위한 공부사전』 등이 있다.

행복은 목표가 아니라 도구

‘일을 즐기면서 하라’는 말과 ‘노력을 해야지 즐기기만 해서는 잘 할 수 없다’라는 서로 다른 말이 있다. 둘 중에 어느 말이 맞을까? 잘 생각해 보면, 둘 다 맞다. 과정은 분명 고통스럽지만 일이든 훈련이든 공부든 그 성취의 순간에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이 더 성장하기 때문이다. 최선을 다하고 그 과정의 고통과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경험을 반복하면서 노력의 열매가 달다는 것을 점차 알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건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훈련하는 것 자체를 즐길 여지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이 정말 즐거운지 솔직하게 생각해 보자. 아무리 진심으로 좋아하고 즐겁게 선택한 일일지라도 높은 수준에 도달하려면 고통과 인내가 대부분인 과정을 견뎌내야 한다. 따라서 ‘일을 즐긴다’는 것이 말이 되려면 실질적인 무언가가 더 필요하다. 바로 ‘행복감’이다.

수많은 심리학자들이 행복은 목표가 아니라 도구라고 말한다. 내일 일을 더 열심히 하고 다가올 많은 일들을 견디기 위해 오늘 작은 행복감의 경험을 에너지로 비축하라는 뜻이다. 이 행복감은 크기보다 빈도가 중요하다. 작은 행복감을 여러 번 느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작은 불편감을 제거하는 것도 행복감에 도움이 된다. 국내의 한 기업은 층마다 최고급 에스프레소 머신을 비치했고, 다른 기업은 양치를 할 수 있는 ‘치카룸’ 공간을 새로 마련했다. 전자는 작은 행복의 추가를, 후자는 작은 불편감의 해소에 도움을 주는 것이며, 실제로 이 두 조치가 직원들의 업무 성과를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느슨하지만 다양한 관계가 필요한 이유

정말 가까운 소수의 친구와 조금 거리가 있는 다수의 친구들 중 누가 더 소중할까? 팀워크 혹은 끈끈한 단결을 조직의 필수 덕목으로 생각하기 쉽상이다. 그런데 ‘자원’과 ‘이동’을 기준으로 보면 흥미롭다. 미국 버지니아 대학의 오이시(Shigehiro Oishi) 교수와 런던 경영대의 케세비르(Selin Kesebir) 교수 연구팀은 이점을 오랫동안 연구해 왔다.¹ 그 대표적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경제 수준이 낮고 사람들의 이동이 적은 지역이나 집단의 사람들은 아주 가까운 친구나 동료에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인다. 이를 통해 결속력을 강화시켜 지킬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지켜서 낭비와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이들에게 더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반면 경제 수준이 높고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지역이나 집단의 사람들은 소수의 가까운 사람들에게만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상대적으로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나눠준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많은 행복감을 주기 때문이다. 왜 그럴까? 아주 가까운 사람이 어디론가 떠나면 그만큼 감당해야 할 상처도 크다. 따라서 인간관계를 좀 더 넓고 멀게 넓혀 둘수록 심리적 안전함이 보장되고 다양한 기회를 기약할 수 있다.

다친 마음을 몸을 다쳤을 때처럼 돌보자

우리는 다쳤을 때 통증이 너무 심하면 진통제를 먹는다. 그런데 진통제의 약효는 다친 부위로 갈까? 아니다. 뇌로 간다. 뇌에서도 배측전방대상피질(dorsal anterior cingulate

cortex)과 같이 통증을 느끼게 하는 작고 특정한 영역으로 간다. 진통제의 약효는 이 뇌 영역을 진정시키는 셈이다.

최근에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됐다. 이별이나 갈등으로 인해 고통을 느낄 때 뇌의 어느 영역이 활동하느냐이다. 이별과 갈등은 살면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고통이다. 실제로 우리는 형제나 자매처럼 가깝게 지냈던 동료가 다른 회사로 떠나가는 이별, 상사나 가족으로부터 듣는 심한 질책, 나의 의견에 사사건건 반대만 하는 누군가로 인해 고통을 느끼고 있지 않은가. 이러한 고통은 살점이 떨어져 나가거나 뼈가 부러지는 것 같은 물리적 상처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회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큰 어려움이 틀림없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사회적 고통(social pain)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런 사회적 고통을 느낄 때는 뇌에서 어디가 활동을 하는가를 알아봤더니 의외로 관련 영역이 비슷했다. 앞서 말한 배측전방대상피질이 주도적으로 활동을 한다. 그러니 뇌에서는 심하게 넘어져서 팔다리가 아플 때와 이렇게 이별 혹은 갈등해서 사회적으로 고통을 느낄 때를 크게 구분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가능하다.

이에 대한 실험을 한 연구가 있다. 사회적 고통을 느낄 때 우리가 몸의 통증을 느낄 때 복용하는 진통제를 먹는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 고통을 덜 느낄까? 놀랍게도 사실이였다. 미국 켄터키 주립대학의 나탄 드월(Nathan DeWall) 교수 연구진은 이별과 같은 사회적 고통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타이레놀과 같은 진통제를 지속적으로 복용케 했다. 그 결과 진통제 복용 집단은 같은 기간 아무것도 복용하지 않은 집단이나 위약(placebo)을 복용한 집단보다 3주 후 고통과 관련된 감정을 훨씬 더 낮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²

놀라운 결과가 아니겠는가. 신체적 고통과 같이 사회적 고통 역시 진통제로 완화될 수 있다니 말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사회적 고통을 느낄 때 진통제를 드시라는 말로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된다. 이러한 연구를 하는 연구자들이 자신들이 논문 뒤에서 반드시 언급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다. 자신들이 이러한 연구를 왜 하느냐면서 말이다.

72

이별 혹은 갈등과 같이 사람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물리적으로 다친 사람처럼 보듬어 주라는 뜻이다. 그렇게 해야 그 사람들의 심리적 상처가 치유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말이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물리적으로 다친 주위 사람들을 배려하지만, 이별 혹은 갈등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는 그 10분의 1도 배려하지 않고 있음을 쉽게 발견한다. 그렇게 해서 안 된다. 그들도 다친 사람들처럼 배려해야 우리는 치료되고 다시금 힘을 내게 돼 있다.

*

본 회차는 강연자의 요청으로 강연보기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1

Oishi, S. & Kesebir, S. (2012). Optimal social network strategy is a function of socio-economic conditions. *Psychological Science*, 23, 1542-1548.

2

DeWall C. N., MacDonald, G., Webster, G. D., Masten, C., Baumeister, R. F., Powell, C., Combs, D., Schurtz, D. R., Stillman, T. F., Tice, D. M., & Eisenberger, N. I. (2010). Acetaminophen reduces social pain: Behavioral and neural evidence. *Psychological Science*, 21, 931-937.